

황해어보

黃海魚譜

An Observation
of the Yellow Sea

황해어보

黃海魚譜

An Observation
of the Yellow Sea

강동완, 강홍구, 공성훈, 김재유, 김정아, 김창환,
박미례, 성효숙, 안경수, 양쿠라, 엄지은, 이욱재,
이재욱, 이태호, 인천녹색연합, 임민욱, 전소정,
조광현, 차기울, 하승현

KANG Dong Wan, KANG Honggoo,
KONG Sung-Hun, KIM Jaeyoo, KIM Jung-Ah,
KIM Changhwan, PARK Mirae, SUNG Hyo-Sook,
AN Gyungsu, Yangkura, UHM Jieun,
LEE Wookjae, LEE Jaeuk, LEE Taeho,
Green Korea Incheon, LIM Minouk, JUN Sojung,
CHO Kwang Hyun, CHA Gi-Youl, HA Seunghyeon

2023 인천아트플랫폼
기획 전시
황해어보 黃海魚譜

2023. 9. 7. — 11. 12.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1

2023 Incheon Art
Platform Exhibition
*An Observation of
the Yellow Sea*

2023. 9. 7. — 11. 12.
Incheon Art Platform
Gallery 1

《황해어보 黃海魚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정보 화면해설 및
점자책이 지원되는 전시입니다. 각 페이지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전시해설과 수어해설영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 Observation of the Yellow Sea is accessible to blind and
visually impaired visitors through screen description and
braille books.

Scan QR code on each page to use exhibition audio guide
and sign language video.

전자책



E-book



목차

Contents

다양한 바다의 얼굴과 대면하기 / 이태호	Facing the Faces of the Sea / LEE Taeho	28
조광현	CHO Kwang Hyun	34
전소정	JUN Sojung	38
이태호	LEE Taeho	42
공성훈	KONG Sung-Hun	46
이재욱	LEE Jaeuk	50
하승현	HA Seunghyeon	54
박미례	PARK Mirae	58
엄지은	UHM Jieun	62
양쿠라	Yangkura	66
이욱재	LEE Wookjae	70
김창환	KIM Changhwan	74
임민욱	LIM Minouk	78
강홍구	KANG Honggoo	82
안경수	AN Gyungsu	86
김재유	KIM Jaeyoo	90
차기울	CHA Gi-Youl	94
김정아	KIM Jung-Ah	98
강동완	KANG Dong Wan	102
인천녹색연합	Green Korea Incheon	106
성효숙	SUNG Hyo-Sook	110
전시 연계 프로그램	Exhibition Related Programs	120
참여 작가 약력	Participating Artists Biography	126
크레딧	Credit	142



인천아트플랫폼 기획 전시
Incheon Art Platform
Exhibition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 1
Incheon Art Platform
Gallery 1

www.inartplatform.kr

황해어보 黃海魚譜

An Observation of the Yellow Sea

2023.
9.7.-11.12.

강동원, 강준구, 공성호, 강재유, 김경아, 김장관, 박혜미, 정효숙, 안경수, 안부덕, 임지은, 이복재, 이재욱, 이태오, 변관능, 변관남, 변관욱, 전소경, 조광현, 차기훈, 하승원

KANG Dong Wan, KANG Honggeu, KONG Sung-Hun, KIM Jaeyoo, KIM Jung-Ah, KIM Changhwan, PARK Mirae, SUNG Hyo-Sook, AN Gyungsu, Yangkura, UHM Jieun, LEE Wookjae, LEE Jaewuk, LEE Taeho, Green Korea Incheon, LIM Minouk, JUN Sejung, CHO Kwang Hyun, CHA Gi-Youl, HA Seunghyeon

주최
인천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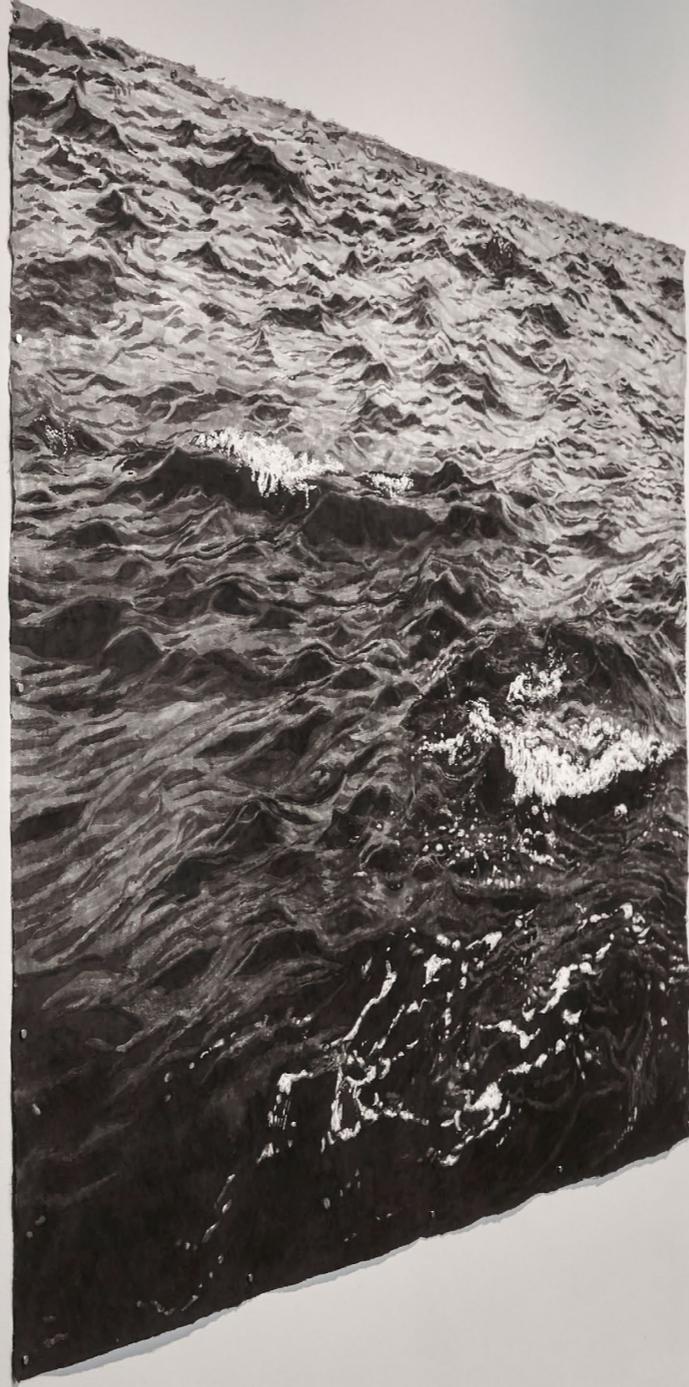
주관
인천아트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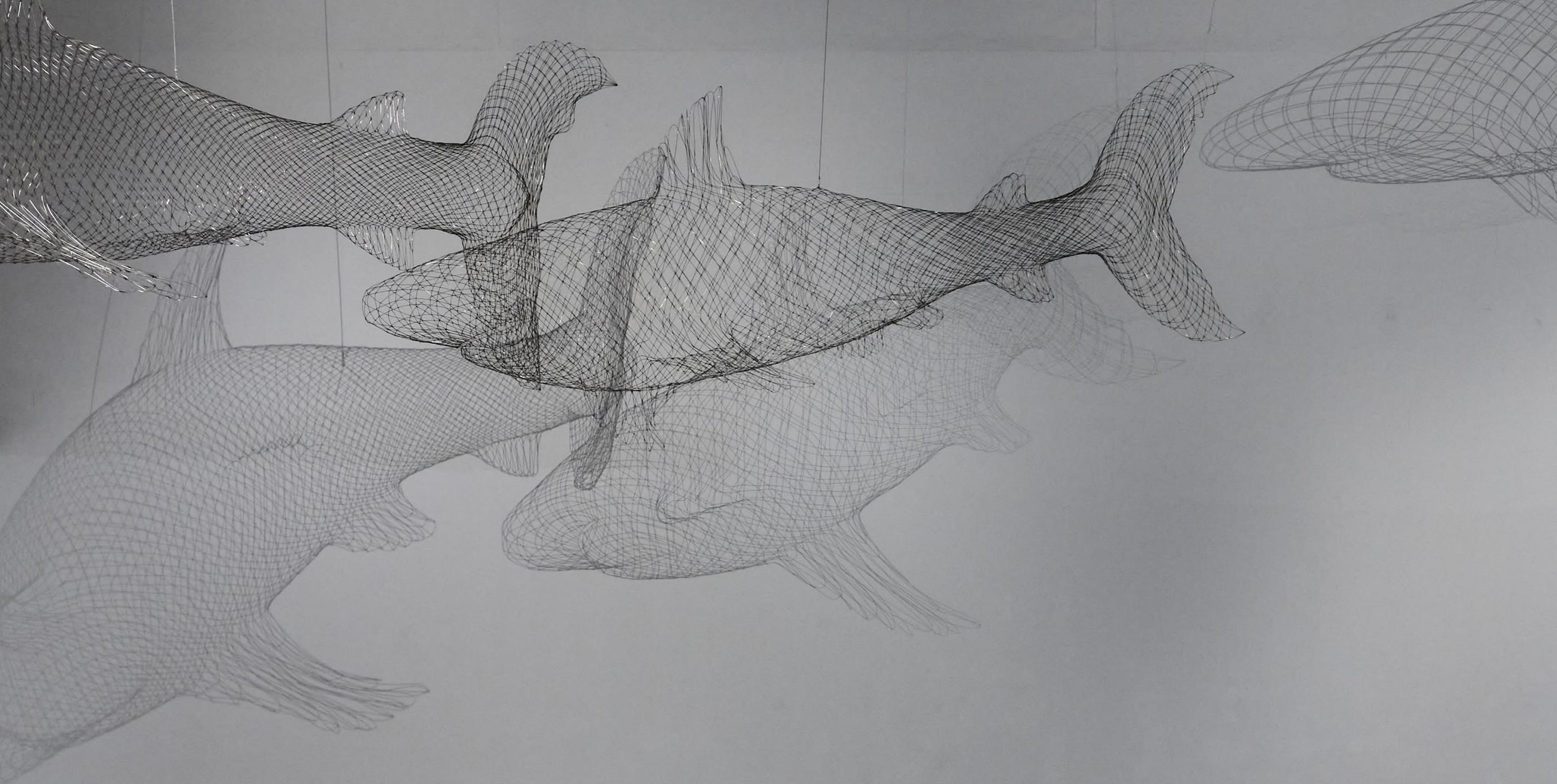
'할망. 할망'

'Granny, Granny'









© 2011
1-800-888-8888



Please refrain from touching the artwork. 작품을 만지지 말아주세요.





작가: HA Gi-Youl

기억상자, 2023	Memory of DMZ, 2019
Box of Memories, 2023	Memory of DMZ, 2019
캔버스에 유채.	혼합매체.
85 x 25 x 15cm(x3점)	50 x 50 x 10cm
Wooden Box and object.	Mixed media.
85 x 25 x 15cm(x3pieces)	50 x 50 x 10cm

QR codes and icons for audio and video content.



고추맛, 김맛, 파맛 등 맛에 따른 제품 이름이 등장한다.
 빵은 재료와 형태에 따라 크게 단설기, 단졸임소빵, 소빵,
 스피롤리나, 와플, 튀긴빵, 호모빵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설기는 카스테라를 뜻한다 해수와 담수 모두에서 자라는
 청록색 조류 스피롤리나는 북한에서 건강을 위해 각광받는
 원료이기 때문에 스피롤리나가 함유된 빵이 많다. 소빵은
 첨가물을 넣은 빵, 단졸임소빵은 첨가물을 당분과 함께 넣어
 빵 속에 넣은 빵을 의미한다.

라면을 의미하는 즉석국수는 소고깃국, 닭고깃국, 돼지고깃국 등
 비교해 보는 즐거움이 있다. 북한 상품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남북한 상품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반찬이나 안주류 포장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양념류는 크게 맛내기(조미료), 후추가루, 양념가루, 고추가루,
 생강가루 등으로 구분된다. 서해5도에서 습득한 제품 포장지 중
 단일품목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제품마다 고유한
 브랜드와 캐릭터를 포함하고 있다. 포장지 속 다양한 오리 사인
 보는 재미도 크다.



7
 6
 6
 5
 2
 5
 4
 2
 1
 1
 124
 1,414



다양한 바다의 얼굴과 대면하기

이태호

《황해어보 黃海魚譜》

전시예술감독

인천아트플랫폼은 2023년 기획전시의 일환으로 전시 《황해어보 黃海魚譜》를 개최한다. 전시 《황해어보 黃海魚譜》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다’이다. 전시는 단지 풍경으로서의 바다에서 벗어나, 삶의 현장으로서의 바다, 소통 수단으로서의 바다, 갈등과 위기로서의 바다, 생명체의 탄생과 서식지로서의 바다, 지구 환경으로서의 바다 등 그 다양한 면모를 구체적으로 살피려고 한다. 그것이야말로 오래전 유배지에서 『자산어보』를 집필하신 선조의 마음을 잇는 자세라 믿는다.

전시는 조광현의 한반도 어류 세밀화로 시작한다. 15년간 한반도 전역의 물고기 1,600점을 세밀화로 재현해온 작가의 작품을 통해 관객들은 어쩌면 처음으로 다양한 어종의 바닷물고기들과 눈을 마주치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제주 해녀의 노동요 “이어도사나” 노래를 듣게 된다. 전소정의 영상 작업 〈보물섬〉은 미지의 바다에서 “물질”로 살아온 한국 해녀의 삶을 비춘다.

검은 먹으로 일렁이는 바다를 표현한 〈물-결〉은 이태호의 회화 연작이다. 〈물-결〉에서 단순히 물 표면의 움직임이 아니라 원초적 생명의 심장 소리, 우주의 박동을 느낄 수 있다면 인상적인 감상이 될 것이다. 이어 마주하는 작품은 공성훈의 바다 풍경이다. 독특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 그 풍경은 현대 인간 내면의 강박과 불안을 마주하게 만든다.

이재욱의 〈굵은 물〉 연작과 하승현의 〈The Pale Red Dot〉 연작은 각각 선감학원 소년 노역이라는 안타까운 역사와 신안 염전에서 벌어진 비인간적인 노동 착취 사건에서 출발한다. 역사가 되어버린 사건들을 어떻게 시각화하고 의미화하는지, 작가마다 다른 접근법에 흥미를 느끼며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박미례의 〈바닷가 할아버지로부터〉는 어부로 생을 마친 할아버지에 대한 추모화다. 그림 속 바다는 할아버지의 생계를 위한 바다 너머, 바다 자체의 기능과 역동성 등 여러 면모를 담고 있다. 엄지은의 〈해일의 노래〉는 작가의 할머니의 이야기 녹음 파일로부터 출발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염전을 덮친 해일과 중첩되면서 허구와 실제 사이를 오간다. 양쿠라의 〈오션 플라마 몬스터〉는 관객 참여형 작품이다. 자전거 페달을 구를 때 해양쓰레기로 만든 몬스터의 눈이 빛을 비춘다. 해양 오염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당장 그 해결을 모색해야 할 문제다. 이욱재의 〈찬란

한 여행〉 또한 해양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친근한 이야기와 그림으로 해양 환경 오염을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전시장 1층에서 조우하는 작품은 김창환의 〈상어〉다.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유영하는 상어떼는 자연의 조화와 바다 생명의 아름다움을 다시 환기한다.

전시장 2층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작품은 임민욱의 영상 작업 〈봉긋한 시간〉이다. 카메라는 바다 물밑과 물 위를 교차해 비추면서 할머니와 손녀 세대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며 동시에 연결한다. 강홍구의 〈모래의 기억〉, 〈빨의 기억〉, 〈바위의 기억〉은 기억과 현재 사이의 틈을 주제로 한다. 디지털 프린트된 현재와 그 위에 드로잉한 작가의 기억이 콜라주되었다.

안경수의 〈간척지〉 연작은 시화방조제라는 인공물을 통해 변화한 풍경의 단면을 사생한 회화다.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개입은 섬의 일상과 생계를 변화시켰다. 김재유의 〈염전〉은 긴 장마로 소금 생산이 멈췄던 동주염전 풍경이다. 작가는 개발이 중단된 장소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차기울의 〈기억상자〉는 나무 상자에 바다에서 모은 오브제가 여러 오브제와 함께 부착되었다. 고고학적 태도로 순환을 다루는 작가의 오랜 주제의 연장선이다. 해양 쓰레기 문제를 작업의 주요한 주제로 다뤘은 김정아의 〈신십장생도〉는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의 자리를 해양 쓰레기가 대신해서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함을 각인시킨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 강동완은 해양쓰레기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저서를 냈다. 북한 접경지대인 서해 5도 지역으로 흘러온 북한 쓰레기는 북한 사람들의 생활상과 북한 산업미술의 현재를 알린다. 인천녹색연합은 다른 지역의 환경단체와 달리 바다와 갯벌의 생태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제시되는 영상과 자료는 30년간 단체가 지속해 온 해양환경을 위한 실천을 보여준다. 성효숙과 목포환경운동연합, 대불 초등학교 5학년 학생 90명이 함께한 〈바다생명만다라〉는 다양한 바다 생명의 지속과 순환을 염원한다.

전시의 끝은 다시 조광현의 물고기 세밀화다. 그의 작품은 바다의 생명체에 대해 보고한다. 바다는 지구 생명체의 산실이자 서식지다. 바다의 생태가 건강할 때 지구도 건강하며 인류의 미래도 밝을 것이라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인천의 바다는 항만, 섬, 갯벌, 염전 등 그 어느 곳보다 다양하고 비옥한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전시 《황해어보》에 참가하고 있는 20명의 작가들은 바다의 다양한 면모를 나름의 방식과 매체로 진지하게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이 전시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바다에 기대어 혜택을 받아온 인류가 오늘날 위기에 빠진 바다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하고 토론하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Incheon Art Platform presents the exhibition *An Observation of the Yellow Sea* as part of its 2023 program. The overarching theme of the exhibition revolves around the sea. However, this exhibition seeks to delve beyond the sea's role as a mere landscape and instead takes a closer look at its multifaceted dimensions. This exploration encompasses the sea as a scene of life, the sea as a means of communication, the sea as conflict and crisis, the sea as the birthplace and habitat of life, and the sea as the global environment. This perspective reverberates with the sentiment of the ancestors who, in times of exile, penned the "Jasan Eobo."

The exhibition begins with CHO Kwang Hyun's detailed drawings of Korean fish. Through the artist's labor-intensive efforts spanning 15 years, wherein he meticulously illustrated 1,600 diverse species of saltwater fish from across the Korean Peninsula, visitors can now engage in a visual tête-à-tête with an array of these aquatic inhabitants. Upon entering the exhibition, visitors are greeted by the Jeju Haenyeo labor song "leodosana." JUN Sojung's video work titled Treasure Island invites contemplation on the lives of Korean haenyeo, these women who brave the unknown depths of the sea through their dedicated plaining diving practices.

Water-Ripple is a series of paintings by LEE Taeho that captures the essence of the sea using black ink. It is not just about observing the surface movement of the water, but rather, it aims to evoke a deeper connection—the very pulse of the universe and the primal heartbeat of life. Moving on, we encounter a seascape created by KONG Sung-Hun. The distinctive tension within this landscape confronts us with the compulsions and anxieties of modern society.

In *Curved Water* by LEE Jaeuk and *The Pale Red Dot* by HA Seunghyeon, the artworks delve into unfortunate historical narratives—boy slavery at Seongam Academy and inhumane labor practices at the Shinan salt farms, respectively. This approach offers a unique window into visualizing and interpreting events

that have become part of history. PARK Mirae's *Passed down from Grandfather* serves as a tribute to her fisherman grandfather. The sea depicted in the painting encapsulates numerous facets of his life—the source of his livelihood, the sea's intricate dynamics, and its inherent functions. *Song of the Storm Surge* by UHM Jieun originated from her grandmother's personal accounts. These narratives interweave with the storm that struck the salt fields, blurring the lines between fiction and reality. *Ocean Plava Monster* by Yangkura encourages audience engagement. This interactive piece features a monster crafted from marine debris, and its eyes light up as you pedal. This engaging installation underscores that marine pollution is not a distant issue—it's a pressing concern that demands swift attention. *Splendid Journey* by LEE Wookjae also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marine debris. Through friendly stories and illustrations, it shines a light on marine pollution, fostering awareness and understanding. The final work we encounter on the first floor is KIM Changhwan's *Shark*, where a school of sharks suspended above us serves as a poignant reminder of the symbiotic harmony of nature and the captivating beauty of sea life.

The first work on the second floor of the exhibition features LIM Minouk's video work titled *Portable keeper_Sea*. The camera alternates between shots of the water below and the sky above the sea, highlighting the generational gap between grandmother and granddaughter while also forging a connection between them. Moving on, we encounter KANG Honggoo's series titled *Memory of Sand*, *Memory of Mud*, and *Memory of Rock*. These works explore the disparity between memory and the present. They are a collage of digitally printed present scenes overlaid with the artist's memories drawn on top of them.

AN Gyungso's *the lay of the land* series portrays a cross-section of landscapes transformed by artificial seawalls. Though they may appear natural, these landscapes have been altered by human intervention, impacting the daily lives and livelihoods of the island's inhabitants. KIM Jaeyoo's *Salt Farm* captures the Dongju Salt Farm, where salt production has halted due to an extended rainy season. The artist's interest lies in spaces where development has come to a standstill. CHA Gi-Youl's *Box of Memories* is a wooden container adorned with various objects gathered from the sea. This piece is an extension of the artist's ongoing exploration of circulation through an archaeological lens. KIM Jung-Ah,

whose work consistently revolves around the theme of marine debris, underscores the gravity of marine ecosystem degradation. As marine debris supplants the traditional Ten Longevity Symbols Painting, it serves as a stark reminder of the urgent need to address the issue.

North Korean studies scholar KANG Dong Wan has been collecting, studying, and documenting marine debris. This North Korean trash, flowing into the five islands along the West Sea bordering North Korea, offers insights into the lives of North Korean people and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n industrial art. In contrast to other loca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Green Korea Incheon has dedicated itself to preserving the sea and tidal flat ecosystems. The showcased films and materials highlight the organization's three decades of efforts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The Sea Life Mandala*, a collaborative creation by SUNG Hyo-Sook, 20 Mokpo Environmental Movement Alliance members and 90 fifth-grade students from Daebul Elementary School, symbolizes a prayer for the ongoing vitality and circulation of diverse marine life. The exhibition concludes with another one of CHO Kwang Hyun's intricate fish illustrations, which vividly portray marine life. The ocean serves as both the cradle and habitat for life on Earth. It is evident that a healthy marine ecology contributes to a healthy Earth and a promising future for humanity.

Incheon's waters are exceptionally diverse and fertile, boasting harbors, islands, tidal flats, salt fields, and more. The 20 participating artists in *An Observation of the Yellow Sea* earnestly convey various facets of the sea through their individual approaches and mediums. This exhibition provides an opportunity to explore and discuss what actions humanity, which has historically benefited from the sea, can undertake amidst its current crisis.

작품 및 전시 전경
Works and Installation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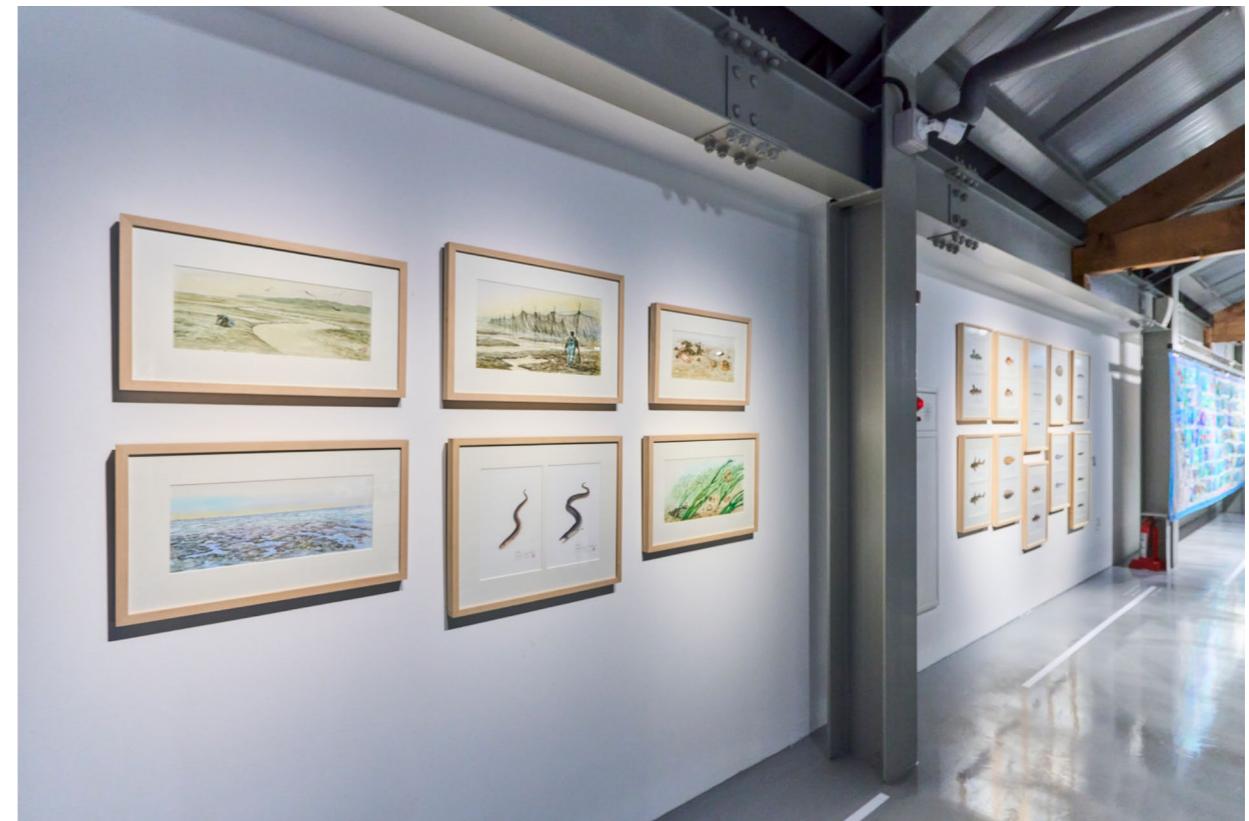


조광현

작가는 스쿠버다이버로 활동하며 15년간 한반도 전역의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 거의 전 종을 추적 관찰하고 자료를 모아 세밀화로 재현, 기록하는 작업을 해왔다. 대표작으로 『한반도 바닷물고기 세밀화 대도감』이 있고, 별도로 『갯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같은 교육용 도서가 있다. 이번 전시에 출품하는 작품들은 1,600점에 달하는 한반도 어류 세밀화 중 서해와 갯벌에 서식하면서 우리 민족의 삶과 밀접한 어종들을 선별한 50여 점이다. 오랜 기간 공들여 온 조광현의 세밀화는 『자산어보』를 집필한 선조의 실학 정신에 가까이 닿아 있다.

CHO Kwang Hyun

CHO Kwang Hyun is a scuba diver who has dedicated 15 years to tracking, collecting, and meticulously documenting nearly all species of freshwater and saltwater fish found on the Korean Peninsula. His most recent accomplishment is the creation of *A Detailed Atlas of Korean Peninsula Saltwater Fishes*. Moreover, he has authored educational books, including *Tidal Flats: What's Happening?* The works on display in this exhibition encompass around 50 selections from the 1,600 intricate works detailing Korean peninsula fish. These chosen specimens are indigenous to the West Sea and tidal flats, intrinsically link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CHO Kwang-hyun's detailed paintings, products of his long-standing commitment, mirror the practical essence of Silhak, who wrote the "Jasan Eobo."



참조기 외 47점, 2019
종이에 수채, 32 × 21cm 외

Yellow Croaker(Larimichthys polyactis)
and 47 pieces, 2019
Watercolor on paper, 32 × 21cm, etc



전소정

작품 <보물섬>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노동과 생존을 이어온 한국 해녀에 대한 영상 작업이다. 영상은 소리꾼 김윤희가 부르는 제주 해녀의 노동요 “이어도사나”의 가락에 따라 바다로 향하는 해녀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제주 색달 해변의 해녀들은 해초, 전복 등을 모으기 위해 바다로 잠수한다. 물질은 저승길을 오간다고 표현할 만큼 위험하고 고되지만, 그녀들에게 바다는 보물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이다. 해녀들이 그토록 바라마지않는 이어도는 죽어서야 가볼 수 있는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섬이다. 작품에서 해녀는 삶과 죽음, 현실과 신화의 경계 위에서 이상향을 향해가는 강인한 존재로 드러난다. 해녀들은 태고의 생활 방식을 지키며 채집과 사냥을 해왔고 바다 자연의 리듬과 순환에 맞춰 사는 방법을 익혀온 존재들이다.

JUN Sojung

Treasure Island is a video work centered around the Korean haenyeo, who have persevered and thrived in a truly unique manner. The video opens with a haenyeo setting out to sea to the tune of “Ieodosana,” a traditional Jeju haenyeo labor song, performed by singer KIM Yul-hee. On Saekdal Beach in Jeju, the haenyeo dive into the ocean to harvest seaweed, abalone, and more. While their labor is fraught with danger and toil, the sea remains an enigmatic realm brimming with treasures. The island the haenyeo yearn for Ieodo, exists solely within their dreams, accessible only in the afterlife. Throughout the work, the haenyeo are portrayed as resilient beings straddling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reality and mythology, ceaselessly striving for an idealized destination. Haenyeo have long embraced an age-old way of existence—gathering, hunting, and mastering the art of harmonizing with the ebb and flow of the sea’s rhythms and cycles.



보물섬, 2014
단채널 비디오,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HD,
11분 9초

Treasure Island, 2014
Single-channel video, color, stereo sound, HD,
11min. 9sec.



작가가 소개하는 <물-결>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30여 년 전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작가는 의사의 권유로 밤낚시에 동행하게 됐다. 2월로 기억되는 그날은 몹시 추운 그믐밤이었다. 거기서 시커먼 바다의 일렁임을 새삼스레 충격적으로 목격하면서, 작가는 전율을 느낀다. 쉬지 않고 일렁이는 물결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대한 우주 생명의 박동일까. 작가는 그 바다 풍경을 자기 삶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간직하고 가져가야 할 기억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작품 <물-결> 연작은 바다의 시커먼 일렁임을 그려야겠다는 그때의 결심이 현실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먹선의 리듬에 따라 세밀하고 정교하게 표현된 바다는 호흡을 가다듬고 물결의 고조에 따라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우리네 삶의 이치를 떠올리게 한다.

The artist introduces the beginning of *Water-Ripple* as follows. Thirty years ago, while suffering from severe insomnia, the artist was invited by his doctor to accompany him on a night fishing trip. It was a bitterly cold night in February, and the artist felt a shiver run down his spine as he witnessed the turbulence of the sea. Are these non-stop ripples the rhythm of a vast cosmic life that we cannot understand? The artist thinks that this seascape is one of the memories he should keep and carry with him until the end of his life's journey. The series of works *Water-Ripple* can be seen as the embodiment of the artist's resolute commitment to capturing the silent ripples of the sea. Meanwhile, the sea, which is delicately and exquisitely depicted according to the rhythm of the ink strokes, serves as a reminder of life's purpose—to steady our breath and maintain equilibrium, mirroring the rise and fall of the waves.

물-결 2016-4, 2016
장지 위에 연필, 먹, 150 × 215cm

Water-Ripple 2016-4, 2016
Pencil, oriental ink on korean paper, 150 × 215cm



물-결 2018-2, 2018
장지 위에 연필, 먹, 150 × 215cm

물-결 2015, 2015
장지 위에 연필, 먹, 150 × 215cm

물-결 2012-6, 2012
장지 위에 연필, 먹, 150 × 215cm

물-결 2016-4, 2016
장지 위에 연필, 먹, 150 × 215cm

물-결 2018-3, 2018
장지 위에 연필, 먹, 150 × 215cm

Water-Ripple 2018-2, 2018
Pencil, oriental ink on korean paper,
150 × 215cm

Water-Ripple 2015, 2015
Pencil, oriental ink on korean paper,
150 × 215cm

Water-Ripple 2012-6, 2012
Pencil, oriental ink on korean paper,
150 × 215cm

Water-Ripple 2016-4, 2016
Pencil, oriental ink on korean paper,
150 × 215cm

Water-Ripple 2018-3, 2018
Pencil, oriental ink on korean paper,
150 × 215cm



물-결 2012-6, 2012
장지 위에 연필, 먹, 150 × 215cm

Water-Ripple 2012-6, 2012
Pencil, oriental ink on korean paper,
150 × 215cm

공성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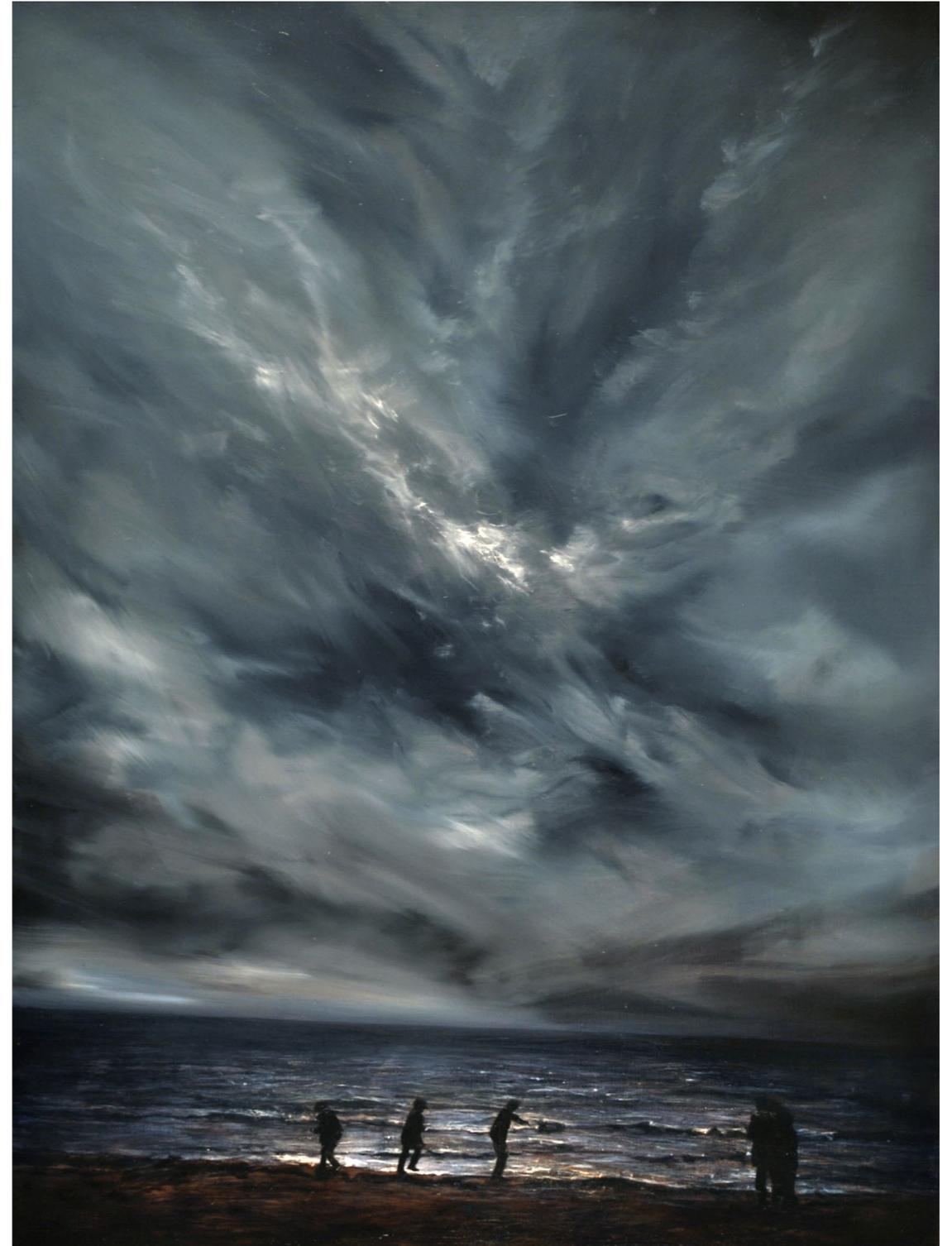
바다 풍경은 공성훈 회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작가가 인천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사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그리는 바다는 한가한 풍경화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날 듯한, 혹은 일어난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낮인지 밤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간대의 바다, 가파른 절벽, 범상치 않은 파도, 그 풍경에서 의외로 사람은 매우 작게 그려지거나 의미 없는 행위(담배 피우는)를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작품은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1774-1840)를 연상케 하지만, 공성훈 작품의 저변에는 현대 한국인의 심리적 강박과 불안이 게재된 것으로 보인다.

KONG Sung-Hun

Seascapes recur in KONG Sung-Hun's paintings, not unrelated to the fact that the artist was born and raised in Incheon. His seascapes, however, are not tranquil landscapes; instead, they pulse with tension of impending or past events: the sea depicted at a time where it is difficult to tell if it is day or night, steep cliffs, unusually surging waves, and seemingly miniscule human figures within the vast expanse, engaged in seemingly purposeless activities like smoking. While these works evoke the spirit of the German Romantic painter Caspar David FRIEDRICH (1774-1840), at the core of KONG's practice lies the psychological compulsions and anxieties of contemporary Koreans.

돌던지기, 2011
캔버스에 유채, 130.3 × 97cm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Throwing Stones, 2011
Oil on canvas, 130.3 × 97cm
MMCA Art Bank collection



파도, 2012
캔버스에 아크릴릭, 227.3 × 181.8cm
OCI 미술관 소장

Wave, 2012
Acrylic on canvas, 227.3 × 181.8cm
OCI Museum Collection



파도, 2011
캔버스에 유채, 100 × 200cm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Wave, 2011
Oil on canvas, 100 × 200cm
MMCA Art Bank collection



이재욱

이재욱은 제주 4·3 사건을 다룬 <레드라인> 연작(2018),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Flare 1980> 연작 등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작업을 해왔다. <굽은 물> 연작은 일제 말기부터 1982년까지 40년간 안산시 대부도에서 운영된 선감학원 소년 수용소의 기록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당시 감금된 소년들이 모진 학대와 착취를 견디지 못하고 썰물 때를 이용하여 육지(인천, 안산, 화성 등) 방향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희생되었다. 소년 노역이라는 참담한 역사를 사진이 담아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작가는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사진에 담는 대신 간조로 바닷물이 빠진 갯벌의 풍경을 택한다. 물이 빠진 갯벌의 갯고랑은 무엇이든 쉽게 집어삼킨다. 천천히 굽어 들어와 차오르는 물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반복해서 선감학원으로 인한 고통을 삼키고 지워나간다.

LEE Jaeuk

LEE Jaeuk's artistic focus has revolved around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series *Red Line* (2018), which delves into the Jeju 4-3 incident, and *Flare 1980*, addressing the 1980 Gwangju Democracy Movement. *Curved water* draws inspiration from records of the Seongam Academy situated on Daebudo Island in Ansan City. This concentration camp operated for four decades, from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until 1982. During that period, numerous incarcerated boys were killed while attempting to escape via land routes (Incheon, Ansan, Hwaseong, etc.) using the low tides. Given the challenge of encapsulating the tragic history of exploited boy labor through photographs, the artist has opted to take an alternative approach. Rather than directly portraying the event, the artist chooses a landscape of tidal flats exposed during low tide. These tidal furrows, capable of effortlessly engulfing whatever lies within, gradually fill with water, recurrently submerging and erasing the anguish inflicted by the Seongam Academy—almost as if to expunge its memory altogether.



굽은 물 #1, 2020
디지털 C-프린트, 182 × 242cm

Curved water #1, 2020
Digital C-print, 182 × 242cm



굽은 물 #3, 2020
디지털 C-프린트, 182 × 242cm

Curved water #3, 2020
Digital C-print, 182 × 242cm



하승현

〈The Pale Red Dot〉 연작은 신안 염전에서 벌어진 비인간적 노동 착취 사건을 계기로 한다. 작가는 다큐멘터리적 시선을 취하는 대신 응시의 거리를 확보한 채 염전 표면의 사진을 제시한다. 사진은 하얗고 푸르고, 검은빛의 불규칙한 격자무늬에서 오는 조형미를 갖는다. 그러나 사진을 자세히 살펴볼 때 눈에 밟히는 붉은 점(Red Dot)은 염전 노동자들의 감시하기 위해, 그리고 도주 방지를 위해 고용주가 제공한 붉은 옷을 의미한다. 염전에서 먼 거리를 취하여 촬영된 사진은 염전을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작가의 선택이 담겨 있다.

HA Seunghyeon

The series *The Pale Red Dot* were prompted by an incident of inhuman labor exploitation in the Shinan Salt Farms Rather than adopting a documentary perspective, the artist presents photographs capturing the surface of the salt farms from a distance. These photographs have a sculptural allure emanating from the irregular grid of white, blue, and black hues. However, upon closer inspection, the red dots within the images represent the red clothing supplied by the employers to surveil workers and deter any escape attempts. Taken from a distance, the photograph shows the artist's choice to present the salt farms as an event, transcending their role as mere landscapes.



The Pale Red Dot 7, 2019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95 × 110cm

The Pale Red Dot 7, 2019
Archival pigment print,
195 × 110cm

The Pale Red Dot 3, 2019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95 × 1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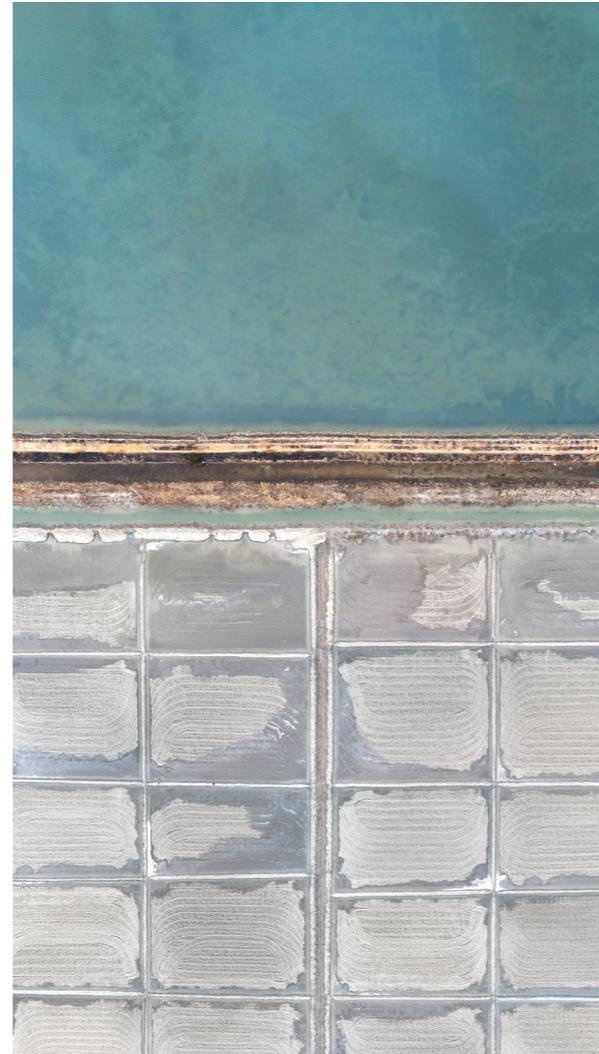
The Pale Red Dot 3, 2019
Archival pigment print,
195 × 110cm

The Pale Red Dot 10, 2019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84 × 110cm

The Pale Red Dot 10, 2019
Archival pigment print,
184 × 110cm

The Pale Red Dot 6, 2019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95 × 110cm

The Pale Red Dot 6, 2019
Archival pigment print,
195 × 110cm



박미례

작가의 설명에 의하면 작품 <바닷가 할아버지로부터>는 속초에서 어부로 일생을 마친 할아버지를 추모하는 그림이다. 그런데 그 추모의 방식이 독특하다.

오랫동안 생계를 책임진 할아버지의 작은 배는 어둠에 쌓인 채 화면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다. 작가가 속초 출신인 것으로 보아 밤에 불 켜고 조업하는 오징어 배가 연상된다. 이 작은 어선은 화면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화면에는 항공모함에서 유조선 유람선 목선과 범선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종이배까지, 세상에서 배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모두 그려져 있다. 그 중 할아버지의 배는 거대한 파도 아래에 있으면서도 주변으로부터 보호받는 듯한 분위기다. 그 앞에 있는 해초도 할아버지 배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도울 것 같이 보인다. 그 밖의 배들은 뚜렷한 목적을 위해 나아가거나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느낌인데도 말이다. 박미례가 표현주의적 필치로 보여주는 바다는 거대한 힘이 부딪치는 바다, 모험의 바다, 투쟁의 바다이면서도 동시에 생계를 위한 바다이자 희생의 바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PARK Mirae

PARK's *Passed down from My Grandfather* serves as a tribute to her grandfather, a lifelong fisherman in Sokcho. What sets it apart is its distinct approach. Positioned prominently at the center of the artwork is her grandfather's small boat, which had been his livelihood for countless years; it now rests in shadowy repose. Being from Sokcho, the artist's depiction evokes imagery of nocturnal squid boats illuminated by lights. This modest fishing vessel occupies a very small fraction of the screen. Within the frame, all kinds of ships and boats unfold—ranging from colossal aircraft carriers and tanker cruise ships to elegant sailing vessels, and even delicate paper boats. Despite the grandeur of the waves above, the grandfather's boat remains nestled beneath, seemingly safeguarded from its surroundings. Even the seaweed in its proximity doesn't appear menacing, but rather, appears to offer assistance. Curiously, this is in stark contrast to the other vessels, which seem to be navigating with purpose or engaged in a struggle for survival. The sea, conveyed through PARK Mi-rae's expressionistic technique, can be viewed as a realm of immense forces—an arena of adventure, strife, sustenance, and sacrifice alike.

바닷가 할아버지로부터, 2016
캔버스에 유채, 237 × 487cm

Passed down from Grandfather, 2016
Oil on canvas, 237 × 487cm



바닷가 할아버지로부터, 2016
캔버스에 유채, 237 × 487cm
(세부)

Passed down from Grandfather, 2016
Oil on canvas, 237 × 487cm
(detail)



엄지은

〈해일의 노래〉는 작가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녹음해 둔 파일을 발견하면서 시작된 작업이다. 이야기꾼이었던 할머니는 말을 점점 잃어 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적어지는 할머니의 말들은 염전에 쌓아둔 소금을 해일이 집어삼킨 이야기와 중첩된다. 작품 속 사람의 걸음은 진실과 허구 사이를 오가는 이야기를 따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를 장소를 향해 나선다. 절망적이며 아름다운 과거와 현재가 노랫말로 변주되어 퍼져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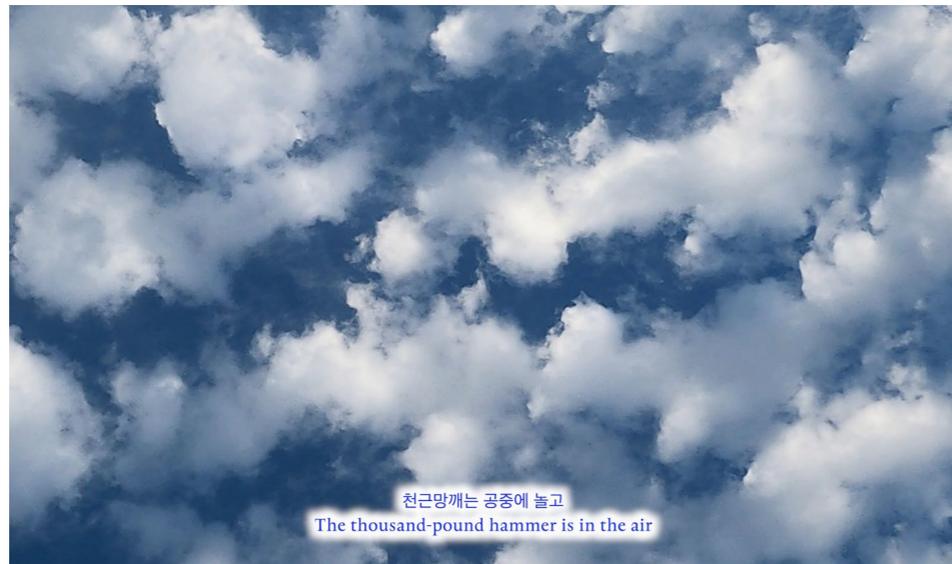
UHM Jieun

Song of the Storm Surge originated when the artist stumbled upon a file of recordings containing her grandmother's narratives. Her grandmother was a storyteller, but her speech was waning due to the passage of time. As her words gradually diminished, they intertwined with the tale of a storm surge engulfing the salt stockpiled within a salt farm. The human footsteps in the work follow the narrative's trajectory, which oscillates between truth and fiction, toward a place that may not actually exist. The hopeless and beautiful past and present are transformed into songs and spread.



해일의 노래, 2021
4K, 단채널 비디오, 컬러/흑백, 스테레오,
18분 37초

Song of the Storm Surge, 2021
4K, single-channel video, color/b&w,
stereo sound, 18min. 37sec.



천근망개는 공중에 놀고
The thousand-pound hammer is in the air



양쿠라

양쿠라는 주로 바다를 작업의 소재이자 주제로 삼는다. 바다에서 찾은 쓰레기로 작업하는 작가는 2016년부터 <오션 플라바 몬스터> 시리즈를 제작했다. 몬스터는 해양오염 물질 중에 가장 쉽게 유실되고 표류하는 쓰레기인 부표로 만들어졌다. 쓰레기로 만들어진 거대한 몬스터의 눈에서 나오는 빛은 관객이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구를 때 만들어지는 전기에너지로 작동된다. 이처럼 <오션 플라바 몬스터>는 전시장 내에서 관객과 작품이 서로 반응하는 형태로 완성된다. 작가는 관람객들이 해양오염 문제를 자신과 동떨어진 먼 개념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가깝게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인식하기를 바란다.

Yangkura

Yangkura predominantly employs the ocean as both his subject and medium. Since 2016, he has been engrossed in his *Ocean Plava Monster* series, a creative endeavor rooted in utilizing discarded oceanic debris. The monsters themselves, conjured from buoys—among the ocean’s most readily adrift remnants—have taken shape through his artistic vision. What distinguishes these monstrous figures is the light emanating from their eyes, a radiance powered by the energy generated when viewers mount a bicycle and propel its pedals. In this dynamic, the *Ocean Plava Monster* transforms into a captivating interaction bridging the spectator and the artwork within the exhibition’s confines. Yangkura aspires for his creation to resonate closely with the viewers. Beyond a remote notion, he endeavors for his artwork to underscore the issue of marine pollution through tangible, everyday connections. In this fusion of creativity and engagement, the artist hopes that viewers will come to perceive marine pollution as an issue that pertains intimately to their daily lives.



오션 플라바 몬스터, 2022
해양 쓰레기 부표, 자전거, 인터랙티브,
가변크기

Ocean Plava Monster, 2022
Ocean trashes buoy, bicycle, interactive,
dimensions variable



이욱재

이욱재는 <어디 갔을까, 쓰레기>(2017) 등 환경 그림책 작가로 활동해 왔다. 환경보호 주제를 다뤘은 이욱재의 그림책 <찬란한 여행>은 버려진 곰돌이 모양 페트병의 여정을 따라간다. 곰돌이 모양 페트병은 사랑받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한때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으나 쓸모가 다했을 땐 가차 없이 버려진다. 그 후 페트병은 이리저리 뒹굴다가 결국 바다에 이르고, 돌고래 떼를 만나기도 하는 등 떠돌다가 마침내 대양의 한가운데에 모여있던 해양쓰레기들과 조우한다. 이른바 “플라스틱 섬”에 그들 중 하나가 되어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 그림책 <찬란한 여행>은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흥미 있는 이야기와 함께 실감 나는 그림을 보여주며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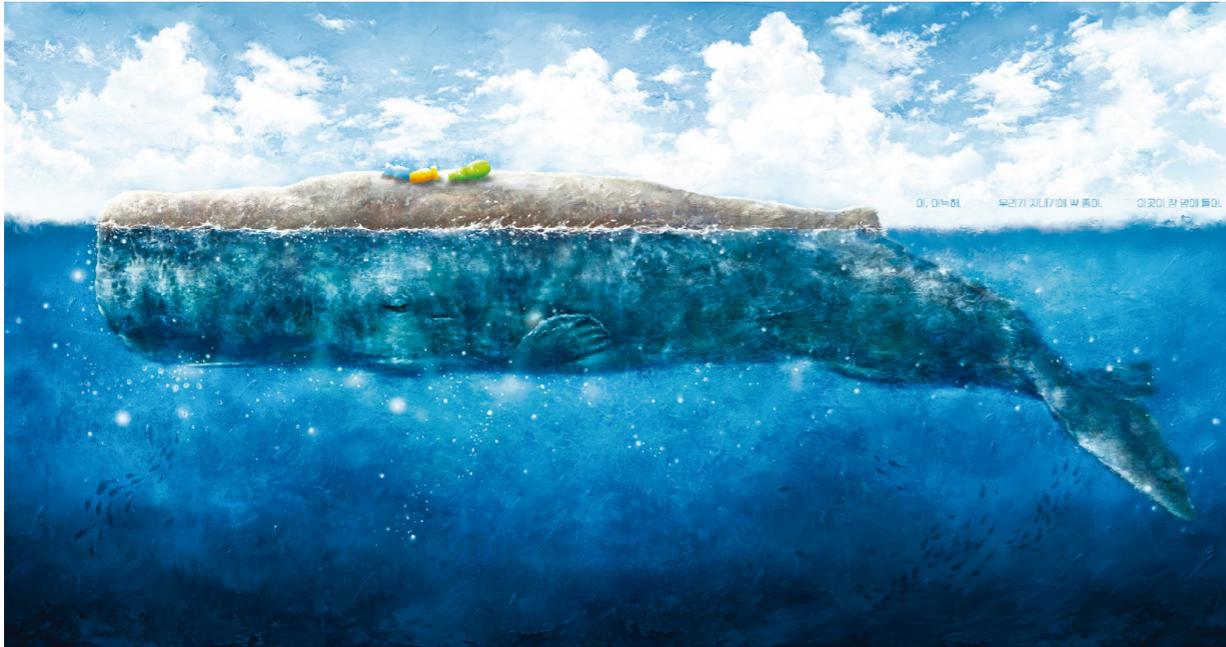
LEE Wookjae

LEE Wookjae is an author of environmental picture books, including *Where Did It Go, Trash* (2017). His picture book *Splendid Journey* revolves around the them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traces the journey of a discarded plastic bottle shaped like a teddy bear. This endearing bear-shaped bottle, once cherished, falls out of favor and is unceremoniously discarded when its utility wanes. Thereafter, it embarks on a journey, eventually arriving at the ocean's expanse, where it encounters a pod of dolphins. Eventually, it becomes entwined with a collection of marine debris in the heart of the ocean, assimilating into the so-called “plastic island.” The narrative and illustrations within this picture book hold particular appeal for children, while simultaneously fostering an increased awareness about protecting the environment in our everyday lives.



찬란한 여행, 2023
디지털 페인팅, 가변크기

Splendid Journey, 2023
Digital painting, dimensions vari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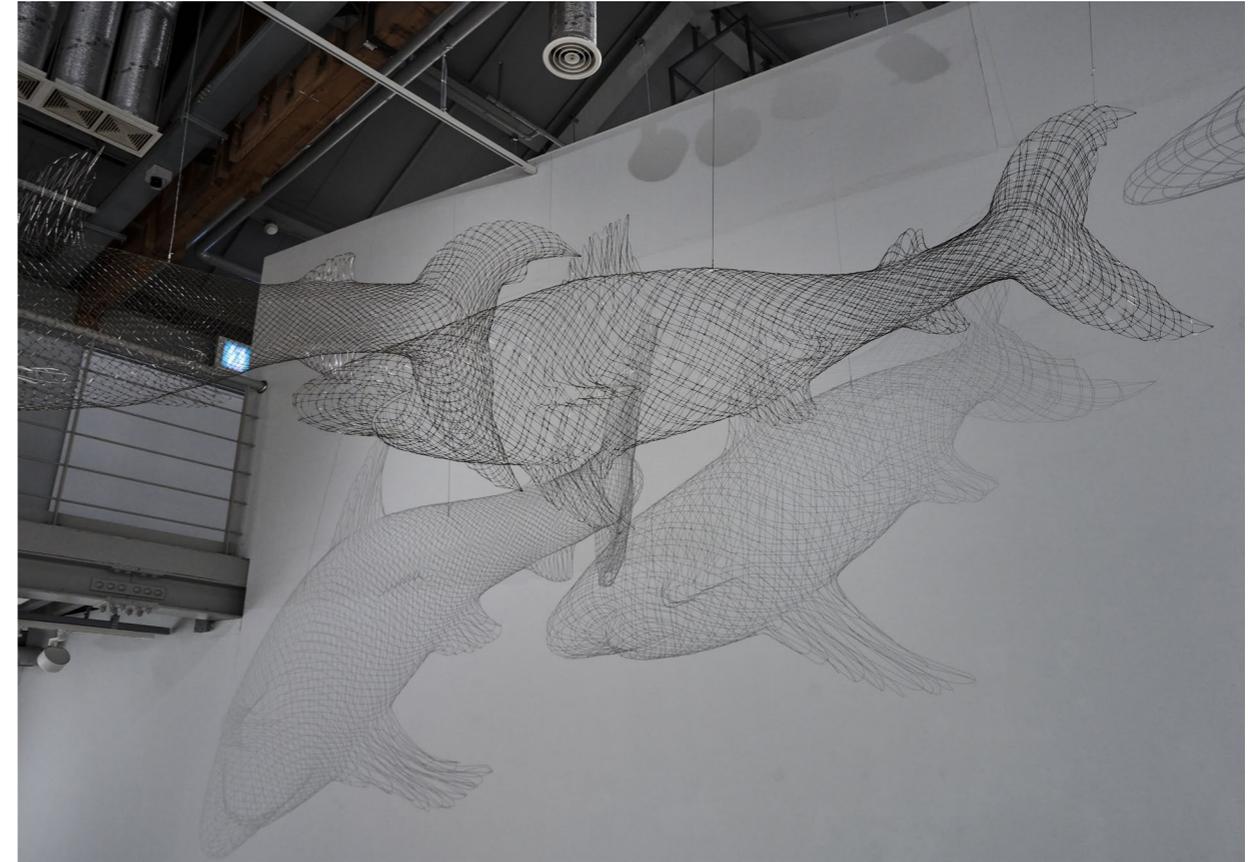


김창환

김창환은 가는 스테인리스 철사나 철근을 용접해 커다랗지만 가벼운 상어를 만들어 도심의 빌딩 사이 공중에 매달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상어>가 다양한 높낮이로 전시장 공중에 유평한다. 관객들은 자신이 마치 물속에서 물고기를 올려다보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된다. 생태계에선 상위 포식자인 상어이지만 오늘날에는 인간의 마구잡이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도 있다. 드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유평하는 상어 떼를 보면서 자연과 그 아름다운 생명력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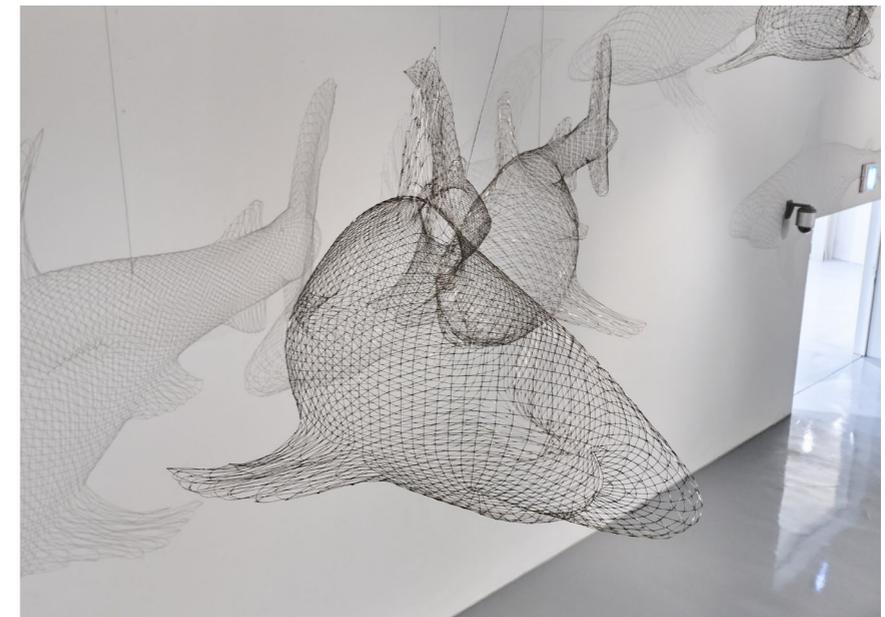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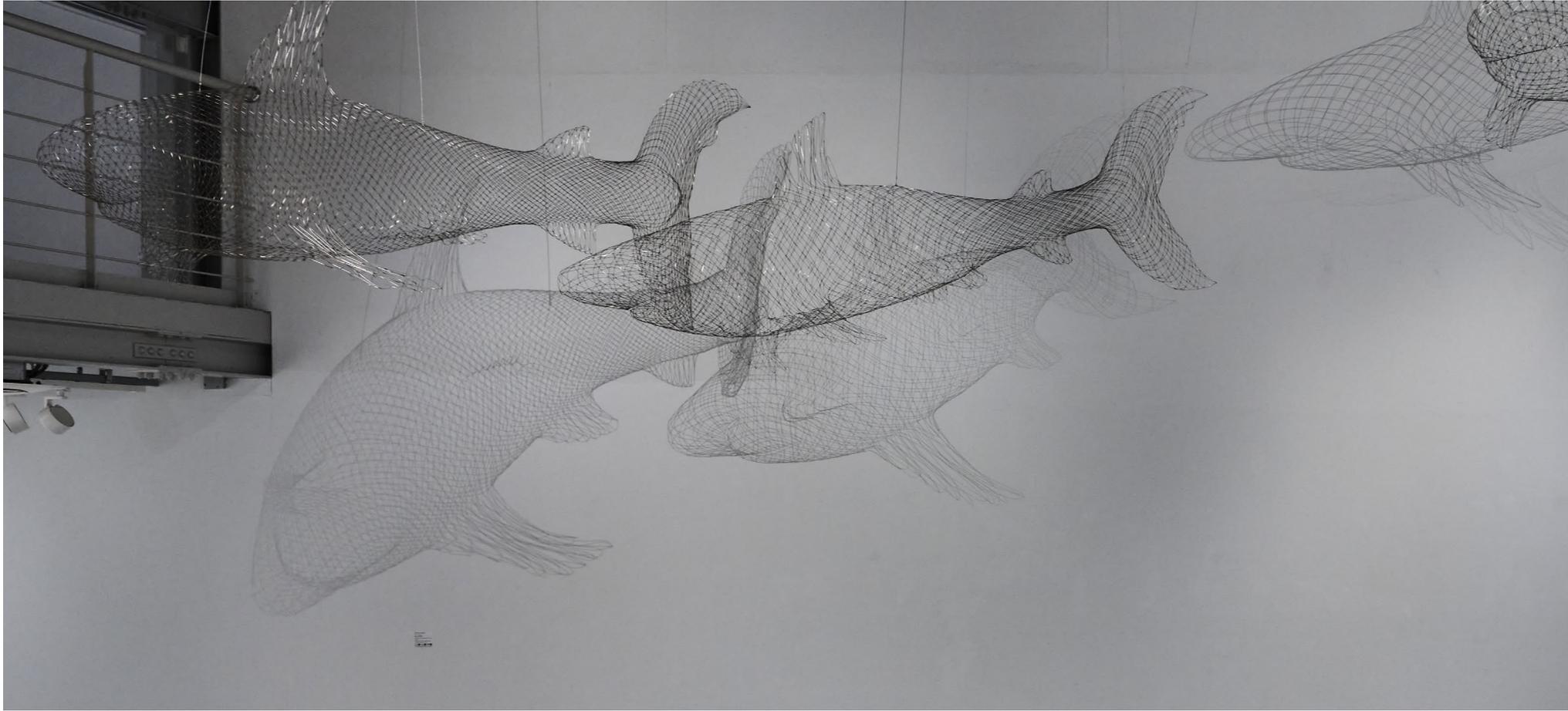
KIM Changhwan

KIM Changhwan has garnered recognition for crafting sizable yet lightweight shark sculptures through the welding of thin stainless steel wire or rebar. These sculptures are then suspended in the urban cityscape between buildings. Within this exhibition, one of his distinctive works, titled *Shark*, is elevated at varying heights in midair. Viewers will find themselves immersed as if beneath the waves, gazing upwards at these aquatic creatures. Sharks, as apex predators in their ecosystems, now face endangerment due to human-driven hunting activities. Witnessing a congregation of sharks moving freely in the expansive ocean provides an opportunity to contemplate nature and its inherent vitality.



상어, 2009-2023
스테인리스 스틸, 철근, 알루미늄, 아곤 용접,
가변크기

Shark, 2009-2023
Stainless Steel, rebar, aluminum,
argon welding, dimensions variable



임민욱

〈봉긋한 시간〉은 바다 위를 헤엄치는 소녀와 소녀의 주위를 감싸는 둥근 부표가 부감으로 비친다. 수면의 파동에 몸을 맡기는 소녀와 바다 아래서 넘실거리는 고운 색의 치마저고리가 평행적인 위치를 이룬다. 카메라는 하늘과 바다, 전통과 현재, 할머니와 손녀, 기억과 미래, 삶과 죽음 사이, 물 위와 물밑이라는 상대적이지 또한 상호보완적인 두 개념을 바느질하듯 이어간다. 동시에 이 작품에서 바다는 실제로는 서로 같은 시공간에서 살 수 없었던 세대, 즉 할머니와 손녀가 공존하는 새로운 차원의 시공간이 되고 있다. 한편 〈봉긋한 시간〉과 함께 출품되는 〈두두물물〉 조각들은 바다 지층을 연상시키는 여러 겹의 짜임새로 엮어져 있다.

LIM Minouk

A girl swimming in the ocean and the round buoys encircling her are reflected in a top-down view. The girl's body in the water's waves is juxtaposed with the delicately colored jeogori bobbing beneath the sea. The camera weaves together a number of relative and complementary concepts: sky and sea, tradition and present, grandmother and granddaughter, memory and future, life and death, above and below the water's surface. Concurrently, this work unveils a novel dimension of time and space within the sea - a realm where generations that could not actually inhabit the same time and space, specifically grandmother and granddaughter, coexist. The Sculptures in *Dudu Mulmul*, which accompany the exhibition, are crafted from unidentifiable objects. These Materials are intricately woven together in layers that resemble ocean formations.



봄긱한 시간, 2020
 HD 비디오, 사운드, 가변설치, 5분 22초

Portable keeper_Sea, 2020
 HD video and sound in loop,
 site specific installation, 5min. 22sec.



두두물물 8번, 2021
 에폭시 레진, 우레탄, 석고, 우동 사리, 어린이
 앞치마, 인조 땃기 머리, 인조 식물, 해조류,
 탐 모형, 팔찌, 목걸이, 끈, 핫팩,
 25 × 148 × 47cm

Dudu Mulmul No. 8., 2021
 epoxy resin, urethane, plaster,
 udon noodle, child's apron,
 artificial daenggi hair, artificial plant,
 seaweed, tower model, bracelet,
 necklace, string, hand warmer,
 25 × 148 × 47cm



전남 신안 출신 강홍구에게 고향 바다와 섬은 작품의 주요 소재이자 주제가 된다. 2005년 오랜만에 고향 섬들을 방문했을 때 작가는 잘 알고 익숙하다고 여겼던 그곳이 낯설게 다가왔다고 말한다. 기억과 현실 사이의 틈은 이후 17년 가까이 신안군 작업의 계기가 됐다. <모래의 기억>, <뺨의 기억>, <바위의 기억>은 현실의 풍경 위에 과거의 기억을 드로잉해 가위로 잘라 붙인 콜라주 작품이다. 기억과 현실이 한 화면에 묶여 표현됐다. 바다와 섬은 늘 아름답게 보이지만 바라보는 이에 따라 의미를 달리한다. 작가에게 있어 바다는 현재와 과거, 혹은 현실과 역사가 교차하는 공간이다.

For KANG Honggoo, a native of Shinan, South Korea, the sea and islands of his hometown are both a major source material and thematic focus for his practice. When he visited his hometown islands for the first time in a longtime in 2005, the artist says he was struck by the strangeness of what he thought was a familiar place. This dissonance between memory and reality served as the catalyst for his series of work around Shinan, spanning 17 years. *Memory of Sand*, *Memory of Mud*, and *Memory of Rock* are collage works in which the artist draws memories of the past and cuts them out with scissors to paste them on top of real-life landscapes. Memories and reality are expressed on the same screen. While the sea and islands consistently exude aesthetic splendor, their significance varies according to the viewer. For the artist, the sea is a space where present and past, or reality and history, intersect.



모래의 기억, 2022
캔버스에 디지털 프린트, 드로잉, 콜라주,
140 × 280cm



Memory of Sand, 2022
Digital print on canvas, drawing, collage,
140 × 280cm

벌의 기억, 2022
캔버스에 디지털 프린트, 드로잉, 콜라주,
140 × 280cm



Memory of Mud, 2022
Digital print on canvas, drawing, collage,
140 × 280cm

바위의 기억, 2022
캔버스에 디지털 프린트, 드로잉, 콜라주,
140 × 285cm



Memory of Rock, 2022
Digital print on canvas, drawing, collage,
140 × 285cm

안경수

〈간척지〉(2016-2017) 연작은 작가가 대부도에 있는 레지던시 입주 기간에 섬 풍경을 바라보며 현장에서 그린 사생 회화다. 그림 속 풍경인 대부도는 시화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경기도 시흥의 시화호와 안산의 대부도를 잇는 과정에서 98km에 달하던 굴곡진 해안선이 직선으로 변모되었다. 방조제 조성으로 섬에서 육지로의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섬사람들의 일상과 생계는 크게 변화했다. 간척지, 간조지가 생기고 갯벌의 모양이 달라지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지형에 경계를 짓고 그것을 구분하는 숫자가 등장했다. 작가는 지형에 부표가 서고 숫자가 붙여지는 풍경의 단면을 사생한다. 그리고 현대에 바다 풍경의 경계가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AN Gyungsu

The Lay of The Land (2016-2017) constitutes a series of on-site paintings that the artist made while looking at the island landscape during his residency on Daebudo Island. The very landscape within the painting, Daebudo Island, underwent significant alteration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Sihwa Seawall. This monumental structure, spanning 98 kilometers and linking Sihwa Lake in Siheung, Gyeonggi-do, to Daebudo Island in Ansan, Gyeonggi-do, replaced the island's gently curving coastline with a resolute straight line. This development, while enhancing accessibility between the island and the mainland, simultaneously wrought profound shifts in the islanders' day-to-day existence and their livelihoods. The formation of reclaimed land, shifts in low tide regions, and the metamorphosis of the tidal flats have all culminated in the emergence of numerical markers—signifying points that delineate and give form to the newly engineered terrain. In his work, the artist intricately captures a cross-section of this landscape, where buoys stand as sentinels upon the ground, each adorned with its own numeric tag. This thought-provoking creation prompts us to ponder the very definition of the seascape's boundaries in our contemporary age.



하나의 그림, 2017
단채널 비디오, 7분 10초

뉴그린1, 2017
캔버스에 아크릴릭, 30 × 30cm

뉴그린2, 2017
캔버스에 아크릴릭, 30 × 30cm

간척지2, 2016
캔버스에 아크릴릭, 37.9 × 45.5cm

간척지1, 2016
캔버스에 아크릴릭, 37.9 × 45.5cm

A Single Painting, 2017
Single-channel video, 7min. 10sec.

New Green1, 2017
Acrylic on canvas, 30 × 30cm

New Green2, 2017
Acrylic on canvas, 30 × 30cm

Reclaimed land2, 2016
Acrylic on canvas, 37.9 × 45.5cm

Reclaimed land1, 2016
Acrylic on canvas, 37.9 × 45.5cm



방조제1, 2017
캔버스에 아크릴릭, 45 × 53cm

Seawall1, 2017
Acrylic on canvas, 45 × 5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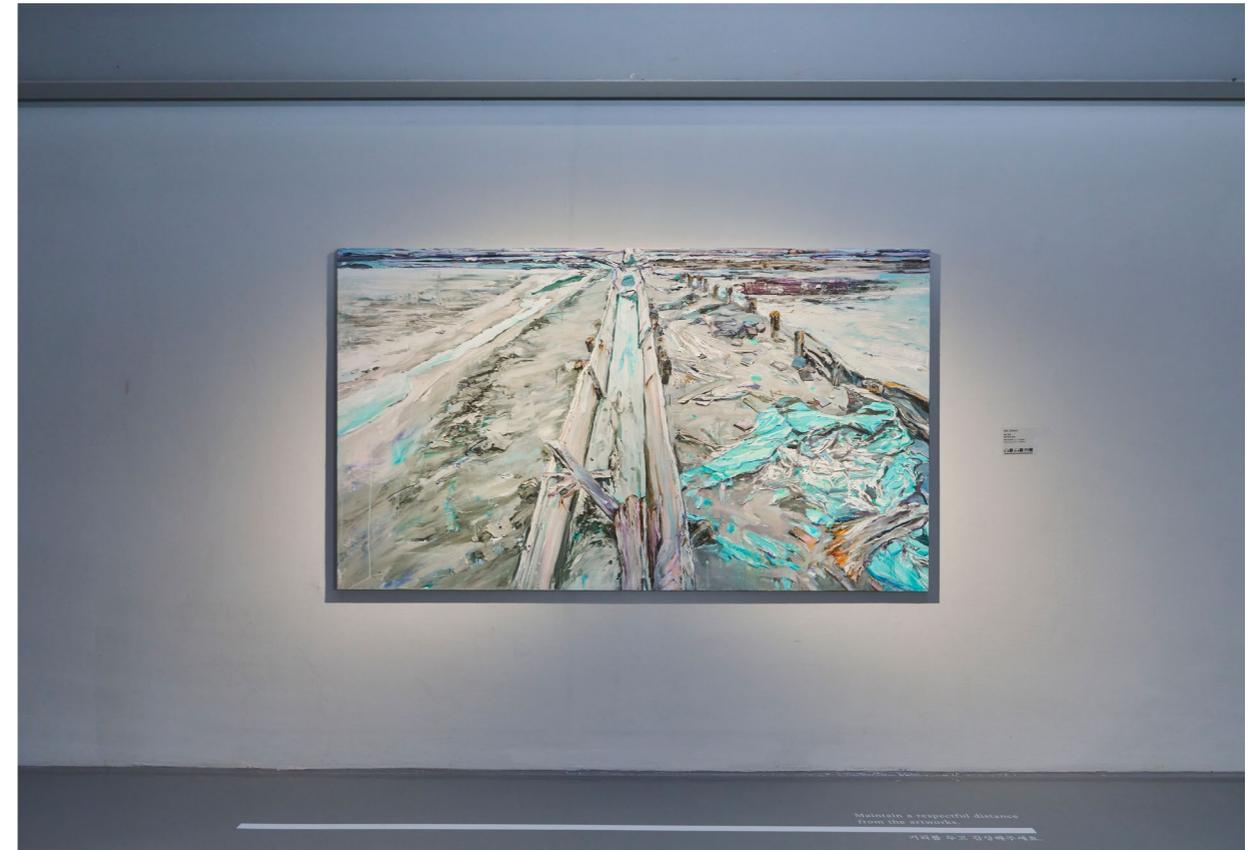


김재유

김재유는 폐쇄된 도로나 염전, 개발이 중단된 장소에 관심을 둔다. 작품 <염전>은 긴 장마로 인해 소금 생산이 멈춰진 안산 대부도에 있는 동주염전 풍경이다. 동주염전은 1953년 시작해 현재까지 채래방식으로 소금을 채취하고 있다. 그러나 채산성이 급격히 감소하다 보니 그 주변 풍경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도시 개발과 국토 정책, 기후 환경으로 변화하는 풍경은 자연에 개입하는 인공적인 요소들에 눈뜨게 만든다. 유화 물감이 마르기 전에 속도감 있는 붓질로 완성한 그림은 인공과 자연, 소멸과 생성 사이 풍경에서 느낀 감정을 담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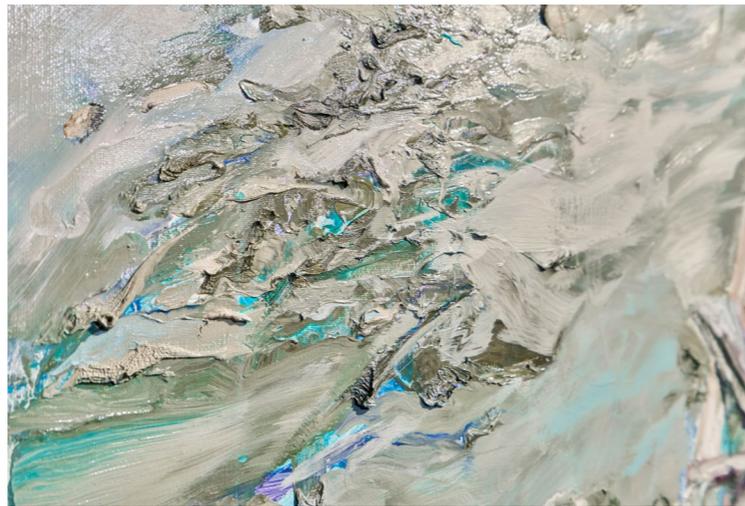
KIM Jaeyoo

KIM Jaeyoo is interested in closed roads, desolate salt farms, and places where development has come to a halt. *Salt Farm* portrays the Dongju Salt Farm on Daebudo Island, Ansan—an area where salt production has ceased due to an extended period of rainy season. Established in 1953, the Dongju Salt Farm has adhered to traditional methods of salt extraction up to the present day. However, owing to the sharp decline in its productivity, the surrounding landscape is also undergoing changes in tandem with the times. This evolving landscape, influenced by urban development, land policies, and climate shifts, opens our eyes to the interventions humans have made in nature. The paintings, completed with swift brushstrokes before the oil paint could set, capture the emotions evoked by the intersection of the artificial and the natural, and the interplay between destruction and cre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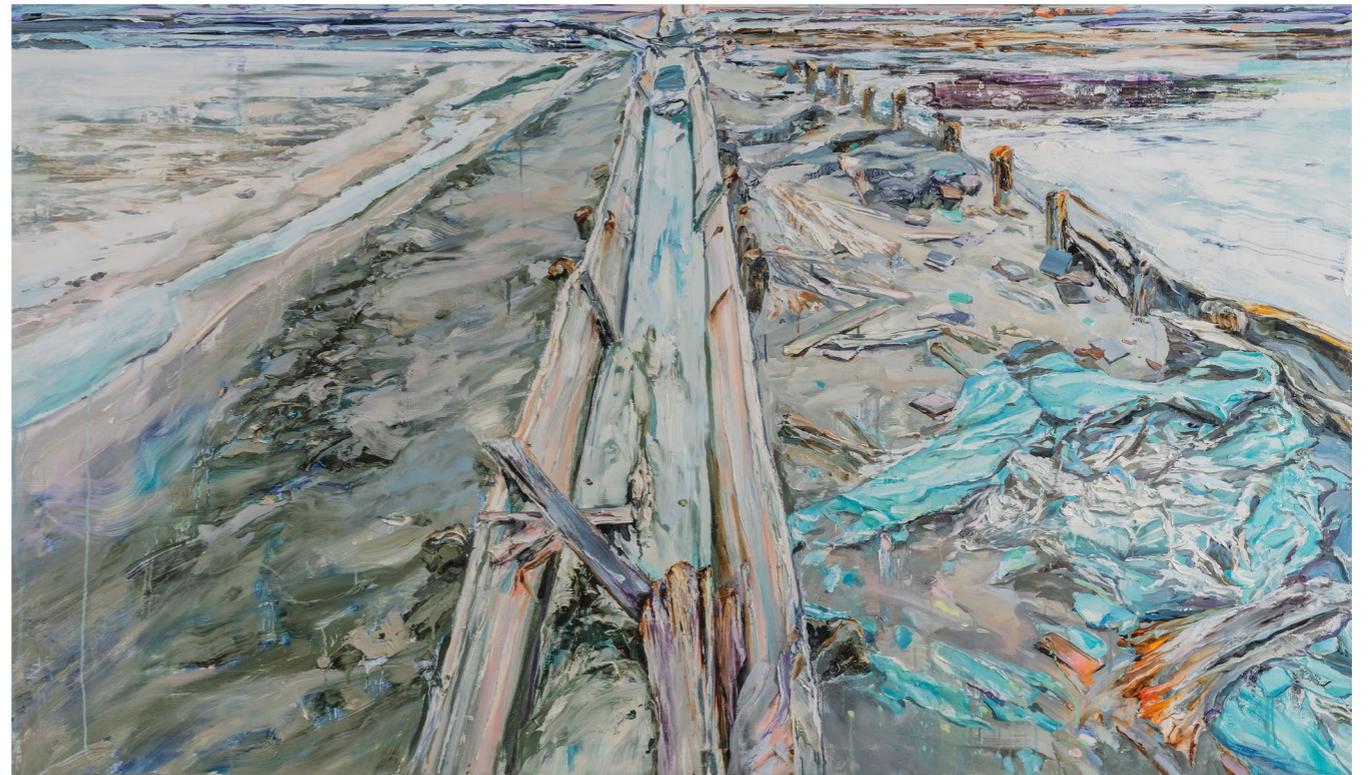
염전, 2020
캔버스에 유채, 112.1 × 193.9cm (세부)

Salt Farm, 2020
Oil on canvas, 112.1 × 193.9cm (detail)



염전, 2020
캔버스에 유채, 112.1 × 193.9cm

Salt Farm, 2020
Oil on canvas, 112.1 × 193.9cm



차기율에게 서해와 인천의 갯벌은 눈앞에 펼쳐진 가장 역동적인 자연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신작 <기억상자>는 구멍이 여럿 뚫린 긴 나무상자에 바다로부터 수집한 여러 오브제가 다양한 형태로 부착되어 있다. 작가는 자연에서 채취한 돌, 나무, 뼈 등의 다양한 천연 물질들로부터 책, 금속, 모니터, 스피커와 같은 문명의 상징물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추출한 오브제를 활용하고 있다. 기억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억상자>는 오랜 기간 작가가 유지해온 고고학적 태도와 주제의 연장선에 있다. 작품 <기억상자>는 자연에서 취한 오브제가 문명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말을 걸어오는 등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For CHA Gi-Youl, the tidal flats of the West Sea and Incheon embody the most dynamic forms of nature. In his new piece, *Box of Memories*, presented within this exhibition, various items collected from the sea are affixed to an elongated wooden box with multiple holes. The artist uses objects drawn from a wide range of natural elements, spanning from stones, wood, and bones to symbols of civilization, such as books, metal, monitors, and speakers. *Box of Memories* serves as a repository for gathering and safeguarding recollections, effectively extending the artist's longstanding archaeological perspectives and themes. The work encourages dialogue, as objects taken from nature speak a new to modern people living in civilization.



Memory of DMZ, 2019
혼합매체, 50 × 50 × 10cm

聖·星·風水 1, 2021
혼합매체, 53 × 46 × 10cm

聖·星·風水 2, 2021
혼합매체, 53 × 46 × 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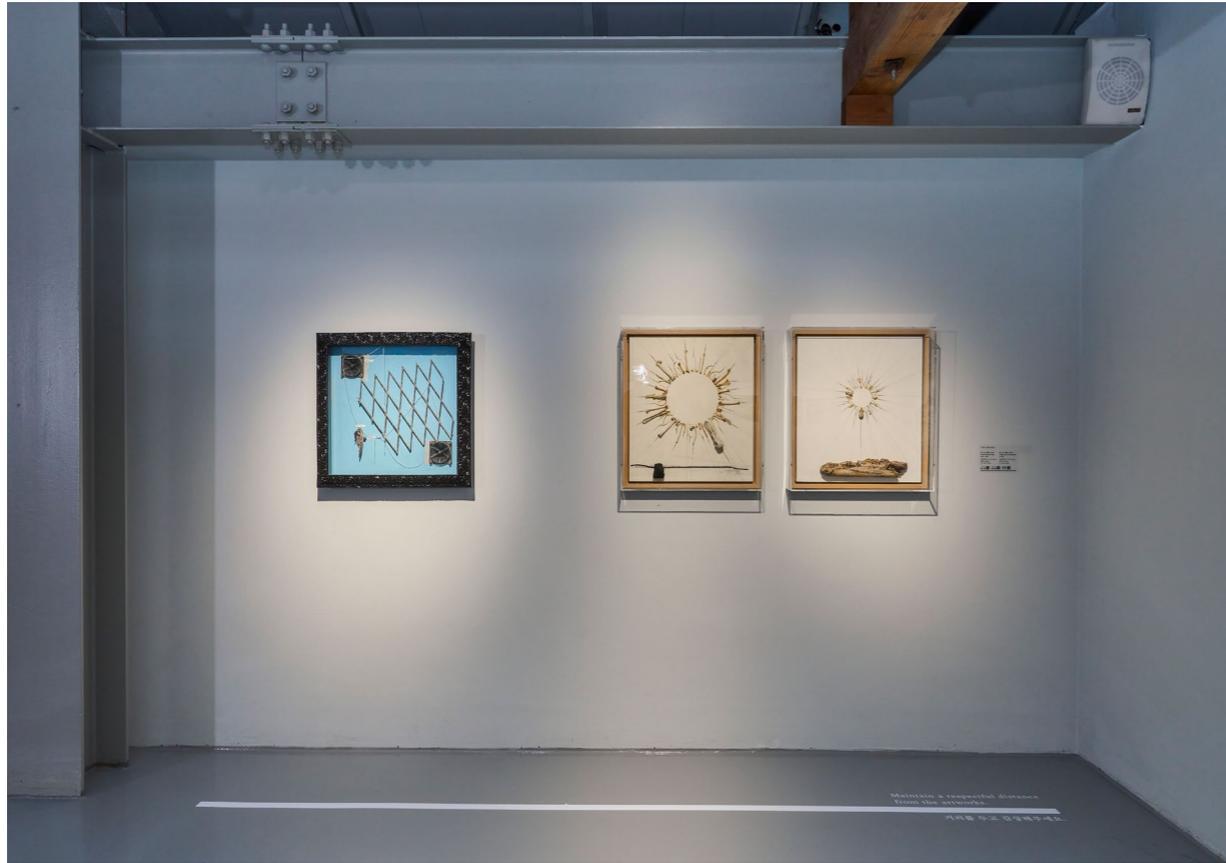
기억 상자, 2023
나무 박스와 각종 오브제, 85 × 25 × 15cm(×3점)

Memory of DMZ, 2019
Mixed media, 50 × 50 × 10cm

A holy star and feng shui 1, 2021
Mixed media, 53 × 46 × 10cm

A holy star and feng shui 2, 2021
Mixed media, 53 × 46 × 10cm

Box of Memories, 2023
Wooden Box and object, 85 × 25 × 15cm(×3pieces)



김정아

십장생도(十長生圖)는 해, 물, 구름, 돌, 소나무, 불로초, 거북 등 열 가지 장생물을 소재로 한 그림으로 장수를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 왔다. 김정아의 <신십장생도>는 십장생의 자리를 하얗게 비우는 대신 병풍 화면 여기저기에 해양쓰레기를 붙였다. 주로 오늘날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다. 과학 기술 발달은 풍요로운 미래를 기대하게 했으나 다른 한편 썩지 않는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를 양산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작가는 소멸하지 않는 인공 화학물질로 뒤덮인 새로운 십장생의 모습을 통해 해양 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있다.

KIM Jung-Ah

The ten long-lived creatures - the sun, water, clouds, rocks, pine trees, herb of eternal youth, and tortoise - have been depicted in paintings as symbols of longevity and to invoke prayers for long life. In KIM's artwork, *New Sip-Jang-Saeng-Do*, a departure from the conventional portrayal of these ten creatures as plain white, the artist has adorned the folding screen with marine debris. This debris is predominantly composed of plastic waste, which is now widely acknowledged as a primary contributor to contemporary ocean pollution. Whil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have raised hopes for a prosperous future, they have concurrently engendered an ecological crisis by generating non-biodegradable refuse like plastic. Through the depiction of these enduring creatures adorned with man-made remnants, the artist accentuates the severity of the marine environmental crisis.

신십장생도, 2021
병풍에 아크릴, 바다에서 주운 쓰레기,
178 × 336cm

New Sip-Jang-Saeng-Do (Ten Longevity Symbols Painting), 2021
Acrylic on an eight-fold folding screen, marine debris collage,
178 × 336cm



신십장생도, 2021
병풍에 아크릴, 바다에서 주운 쓰레기,
178 × 336cm (세부)

New Sip-Jang-Saeng-Do (Ten Longevity Symbols Painting), 2021
Acrylic on an eight-fold folding screen, marine debris collage,
178 × 336cm (detail)



강동완

동아대학교 강동완 교수는 북한에서 떠밀려 온 바다 쓰레기를 수집하고 그것을 통해 북한 사회를 여러모로 분석한 저술을 펴냈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자료는 서해 5도에서 저자가 직접 수집한 북한 쓰레기다. 쓰레기는 북한의 생활용품, 기호식품, 위생용품 등의 포장지로 그 종류가 708종, 1,400 여점에 달한다. 그 포장지들은 북한 주민의 현재 생활상과 더불어 산업미술의 동향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단절된 상태인 북한 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입으며 사는지, 그것은 어떻게 관리되며 그 물건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바다는 공식적으로 남북 왕래가 중단된 현실에서도 여전히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KANG Dong Wan

KANG Dong Wan, a professor at Dong-A University, has published books that analyze North Korean society by examining marine debris collected from North Korea. The showcased materials in the exhibition consist of North Korean trash collected by the author from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The assortment of trash encompasses 708 distinct types of wrappers for North Korean household items, specialty foods, and hygiene products, totalling over 1,400 individual pieces. These wrappers offer valuable insights into understanding the current lives of North Koreans and discerning trends in industrial art. They provide a glimpse into North Koreans' dietary preferences, clothing, daily surroundings, and aspirations. All this unfolds within that occupies a unique position—simultaneously the closest to South Korea and yet the most detached from the global community. Meanwhile, the sea continues to play a vital role in connecting people, even when travel between the two Koreas has officially ceased.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는 항만, 섬, 하천, 갯벌, 염전 등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환경과 함께 형성돼 온 도시다. 그래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다. 인천녹색연합은 “생태계 질서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활동하면서 특별히 바다와 갯벌의 생태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의 서식을 확인하고 즐기란 요구 끝에 인천시가 ‘영종도 갯벌 보전계획 수립’을 끌어냈는가 하면, 백령도 점박이물범 집단서식지 하늬해변 등을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해 그 동물들 보호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또한 세계 5대 갯벌인 우리나라 갯벌의 훼손을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다. 한편으로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인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서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0년간 단체가 바다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실천한 교육, 시위, 워크숍, 토론, 시민결합운동 등을 소개하며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영상을 상영한다.

Green Korea Incheon

Incheon, shaped by its distinctive environment comprising a harbor, islands, rivers, tidal flats, and salt farms, stands as a city with a plethora to both nurture and safeguard. Green Korea Incheon, an entity committed to “preserving and restoring ecological equilibrium,” has diligently worked to shield the marine and tidal flat ecosystems. By identifying the dwelling of the endangered milky fiddler crab, Green Korea Incheon led the charge in establishing the Yeongjongdo Tidal Flat Conservation Plan. Furthermore, they earmarked Hanui Beach, a haven for spotted seals on Baekryeong Island, as a National Ecotourism Area—a pivotal move that laid the groundwork for safeguarding these creatures. The organization’s endeavors extend to averting the deterioration of South Korea’s tidal flats, which rank among the world’s top five tidal flat regions. Concurrently, they are spearheading a petition drive for the designation of Incheon Tidal Flats as a World Natural Heritage Site, an initiative championed by the city of Incheon. The exhibition will spotlight the organization’s three decades of endeavors encompassing education, protests, workshops, debates, and mobilizations, all unified in their mission to shield the oceans and the environment.





상상하는 마음, 2023
 단채널 비디오, 6분 17초
 인천아트플랫폼 제작 지원

Affectionate Curiosity, 2023
 Single-channel video, 6min. 17sec.
 Commissioned by Incheon Art Platform



인천의 면적 30% 이상이 간척 사업을 통해 탄생했고

성호숙에 있어 예술은 심미적 감상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의 장이다. 작가는 사회 문제와 환경문제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미술적 방식을 동원해왔다. <바다 생명 만다라>도 그 실천의 연장선이다. <바다 생명 만다라>에 포함된 195장의 그림은 목포환경운동연합 및 대불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과 협업 과정을 거쳐 제작됐다. 작가는 세계에 6천 마리만 남아있다는 저어새 관련 작업을 시작으로 연안의 생명공동체를 지키는 미술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폐현수막 위에 안치된 어린이의 그림들은 생명과 생태,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전한다. 만다라 그림이 삶의 지속과 순환을 염원하듯 <바다 생명 만다라>는 바다 생명의 지속과 자연의 순환을 염원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이 담겼다.

For SUNG Hyo-Sook, art transcends mere aesthetic admiration; rather, it stands as a realm of action aimed at enhancing our world. The artist has harnessed a range of artistic techniques to address social and environmental concerns. *The Sea Life Mandala* project stands as an extension of this ethos. Comprising 195 drawings, this mandala emerged through a collaborative endeavor with Environmental Movements in Mokpo, fifth-grade students from Daebul Elementary School in Mokpo. Continuously dedicated to the safeguarding of coastal ecosystems, the artist's journey commenced with her work centered around the black-faced spoonbill—a species that now numbers a mere 6,000 globally. The children's drawings on the banners adeptly convey the significance of life, ecology, and the marine realm. In a manner reminiscent of mandala paintings that beseech for the perpetuation of existence and the eternal cycle, *The Sea Life Mandala* encapsulates the aspirations of numerous individuals who yearn for the continuity of marine life and the harmony of nature's rhythm.

바다생명 만다라, 2022
폐 현수막, 아크릴 물감, 유성매직, 바느질,
150 × 620cm
협업: 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 20여 명,
대불 초등학교 5학년 학생 90명

The Sea Life Mandala, 2022
A throwaway banner, acrylic, permanent markers, sewing,
150 × 620cm
Participated by 20 Mokpo Environmental Movement Alliance members and
90 fifth-grade students from Daebul Elementary School



바다생명 만다라, 2022

페 현수막, 아크릴 물감, 유성매직, 바느질,
150 × 620cm (세부)

The Sea Life Mandala, 2022

A throwaway banner, acrylic, permanent markers, sewing,
150 × 620cm (detail)



황해보
黃海魚譜

An Observation
of the Yellow S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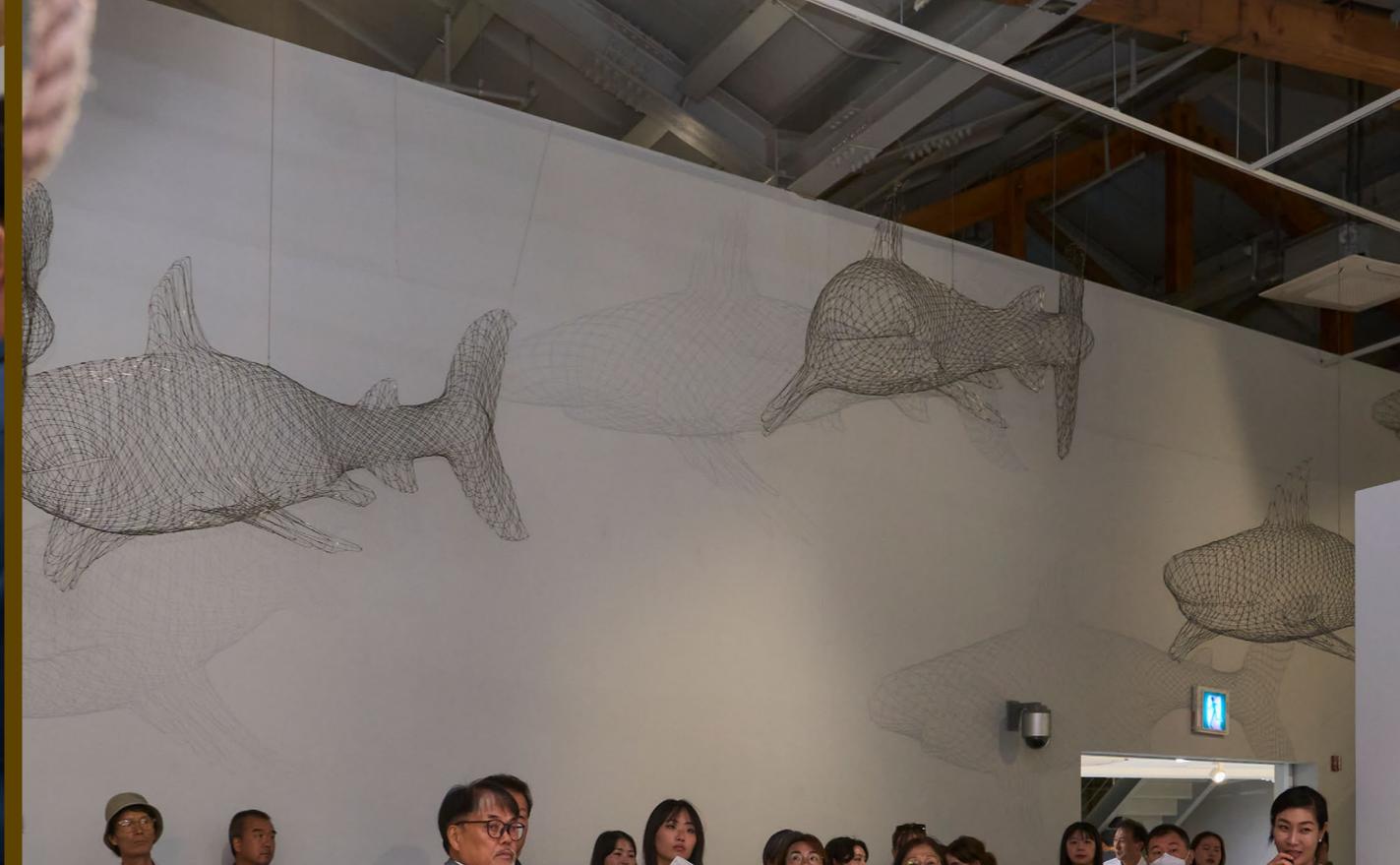
2023.
9.7.-11.12.

B

황해보
2023.
9.7.-11.12.

강홍구,
김제유,
김창환,
성효숙,
양쿠라,
이욱제,
이태호,
색연합,
전소정,
차기울,







아티스트 토크 I.

〈바다가 매개한 사건, 기억, 역사:

강홍구 × 이재욱 × 하승현〉

사진을 매체로 작업하는 강홍구, 이재욱, 하승현과 함께 바다에 주목하는 이유와 표현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사진 작가들은 카메라로 어떻게 사건, 기억, 역사를 포착하고 작품으로 구현해 내는지 토론하면서 사진예술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시도해 본 자리다.

Artist Talk I.

'Events, Memory, and History Mediated

by the Sea: KANG Honggoo ×

LEE Jaeuk × HA Seunghyeon'

Photographers KANG Honggoo, LEE Jaeuk, and HA Seunghyeon discussed their focus on the sea and how they express it. Photographers from different generations talked about how they use their cameras to capture events, memories, and history, translating them into artworks and attempting to understand the art of photography in general.

아티스트 토크 II.

〈바다가 매개한 작업, 풍경, 서사:

김재유 × 안경수 × 엄지은〉

작가들이 머무는 공간은 작품 활동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황해어보》 전시에 참여하는 김재유, 안경수, 엄지은은 인천과 경기지역 레지던시와 프로그램에 함께한 이력이 있다. 바다를 둘러싼 문제의식의 배경과 이 주제를 미술로 풀어나가는 각자의 방식에 대해 각각의 경험을 나누어 보았다.

Artist Talk II.

'Work, Landscape, and Narrative

Mediated by the Sea: KIM Jaeyoo ×

AN Gyungsu × UHM Jieun'

The space in which artists live has a strong influence on their work. KIM Jaeyoo, AN Gyungsu, and UHM Jieun, who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have taken part in residencies and programs in Incheon and Gyeonggi. They shared their experiences regarding the issues surrounding the sea and their own ways of addressing this topic through art.



일시 9월 16일(토) 오후 3시 — 오후 4시 30분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교육실 1(H)

참석자 강홍구, 이재욱, 하승현

Date September 16 (Saturday), 3—4:30pm

Venue IAP Education Room 1 (H)

Participants KANG Honggoo, LEE Jaeuk, HA Seunghyeon

일시 9월 16일(토) 오후 4시 30분 — 오후 6시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교육실 1(H)

참석자 김재유, 안경수, 엄지은

Date September 16 (Saturday), 4:30—6pm

Venue IAP Education Room 1 (H)

Participants KIM Jaeyoo, AN Gyungsu, UHM Jieun

강연 프로그램

<실천의 바다>

바다와 특수한 관계 맺기의 방식은 다양하다. 서해 5도에 밀려온 북한 쓰레기를 수집해 북한 사람들의 삶과 산업을 조사하는 북한학 연구자 강동완, 해양 생태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김정아, 인천에서 거주·활동하며 연안 생명체를 지키는 미술행동을 하는 성효숙과 함께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개입과 실천의 장소로서 바다에 대해 논의했다.

Lecture Program

'The Sea in Action'

There are numerous ways to establish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ocean. We delved into the ocean as a realm of practical and empirical intervention and action, featuring KANG Dong Wan, a North Korean researcher who gathers North Korean debris washing up on the fifth degree of the West Coast to explore the lives and industries of North Koreans; KIM Jung-Ah, who actively engages in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and SUNG Hyo-Sook, an Incheon resident who employs art to safeguard coastal communities.



일시 9월 17일(일) 오후 3시 — 4시 30분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교육실 1(H)
 참석자 강동완, 김정아, 성효숙

Date September 17 (Sunday), 3—4:30pm
 Venue IAP Education Room 1 (H)
 Participants KANG Dong Wan, KIM Jung-Ah, SUNG Hyo-Sook

학생 참여 워크숍

<세밀화로 완성되는 도감의 세계>

조광현은 스쿠버다이버로 활동하며 15년간 한반도 전역의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 거의 전 종을 추적 관찰하고 자료를 모아 세밀화로 재현, 기록하는 작업을 해왔다. 1,600점에 달하는 한반도 어류 세밀화를 도감으로 묶어내기까지의 기획 과정에 대해 듣고 어류 세밀화 그리기를 학생들과 시민이 함께 시도해 보았다. 세밀화와 도감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다.

Student Participation Workshop

'The World of Encyclopedias in Detail'

As a scuba diver, CHO Kwang Hyun has spent 15 years tracking, collecting, and documenting nearly every species of freshwater and saltwater fish on the Korean Peninsula. Students learned about the planning and process of compiling details of 1,600 fish species from the Korean Peninsula into a book. Also, they tried their hand at drawing fish details. This program was tailored students interested in detailed drawing.



일시 10월 31일(화)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교육실 1(H)
 참석자 조광현, 인성여자중학교 학생 26명, 일반 참여자 2명

Date October 31 (Tuesday), 10:30am—12:30pm
 Venue Education Room 1 (H)
 Participants CHO Kwang Hyun, 26 students from Insung Girls' Middle School and 2 Participants

수어 도슨트 프로그램

《황해어보》 전시에 대한 수어 해설 앱을 제작하였으나 기획자와 함께 전시와 작품에 대해 묻고 답하는 기회는 흔치 않다. 수어해설사를 모시고 전시 기간 중 1일 수어 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Sign Language Docent Program

While we have developed a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pp for the exhibition, the chance to engage in discussions about the exhibition and its artworks with a curator is quite uncommon. Therefore, we organized a one-day sign language docent program, featuring a sign language interpreter, as part of the exhibition experience.



일시 11월 2일(목) 오후 2시 — 3시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1(B)

Date November 2 (Thursday),
2—3pm
Venue IAP Gallery 1 (B)

장애/비장애 예술인 교류 워크숍 〈함께하는 바다〉

발달장애예술인과 예술 전공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는 교류 워크숍. 《황해어보》 전시를 관람하고 전시와 작품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드로잉하는 작업을 모아 공동의 작품을 만들어보았다.

Artists with Dis/abilities Exchange Workshop ‘Together at Sea’

An interactive workshop for artis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art students to collaborate. They visited the *An Observation of the Yellow Sea* exhibition, interpreted the artworks in their unique ways, and collaboratively created art through drawing.



일시 11월 7일(화) 오전 11시 — 오후 12시 30분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1(B) 및 교육실 1(H)
참석자 발달장애예술인 교육기관 스페셜아트 (대표: 김민정 대표), 장애예술인, 인천지역 미술대학생

Date November 7 (Tuesday),
11am—12:30pm
Venue IAP Gallery 1 (B),
IAP Education Room 1 (H)
Participants Special Arts, an educational organization for artis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presentative: KIM Min-jung), artists with disabilities, and art students from Incheon area art colleges.

참여 작가 약력

강동완

강동완(b.1974)은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다. 주요 연구 분야는 통일·북한 문제로, 주로 북한-중국 접경지대에서 북한 주민의 실상을 파악해왔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전 세계 국경 봉쇄되는 상황에서 서해 5도는 북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국내 북한 접경지대인 서해 5도 지역으로 흘러온 북한 쓰레기를 주위 연구하면서 ‘쓰레기 교수’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바다를 통해 얻는 쓰레기야말로 북한 사회를 보는 중요한 렌즈라고 말한다. 주요 저서로는 『통일의 눈으로 몽골을 다시보다』(부산: 너나드리, 2023), 『서해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부산: 너나드리, 2021), 『평양 882.6km: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부산: 너나드리, 2020), 『그들만의 평양: 인민의 낙원에는 인민이 없다』(부산: 너나드리, 2019) 외 다수가 있다.

강홍구

강홍구(b.1956)는 전남 신안에서 태어났다. 작가는 목포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후 6년 동안 섬에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 홍익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주로 디지털 사진을 작업의 주요 매체로 삼는다. 《무인도와 유인도-신안바다2》(사비나미술관, 서울, 2023), 《신안바다: 뿔, 모래, 바람》(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2022), 《집 꽃 마음 - 은평뉴타운의 기억》(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서울, 2021), 《사람의 집 - 프로세믹스 부산》(고은사진미술관, 부산, 2013), 《풍경과 놀다》(로댕 갤러

리, 서울, 2006) 등의 주요 개인전을 열었으며, 최근에는 《ㅎㅎㅎ》(OCI 미술관, 서울, 2023), 《가택연금 - Home sweet home》(상업화랑 웅산, 상업화랑 을지로, 서울, 2022), 《떠도는 영상들의 연대기》(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9)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한국문예진흥위원회 올해의 예술가상(2006)과 동강 사진예술상(2008), 서울루나포토펠레올해의 작가(2015)를 수상했다.

공성훈

공성훈(b.1965-2021)은 인천 출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작가는 1990년대에 미디어, 사진, 설치 작업을 주로 선보였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 전통적인 회화를 통해 익숙한 일상을 다룬 구상적 풍경화에 집중했다. 일상적 풍경이나 거대한 자연의 모습을 기이하고 낯설게 보여주며, 밀도 높은 심리적 차원에서 풍경 회화를 그려왔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사건으로서의 풍경》(대구미술관, 대구, 2019-2020), 《웅덩이》(아라리오뮤지엄 탐동시네마, 제주, 2019-2020), 《어스름》(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15), 《돌던지기》(통인옥선갤러리, 서울, 2014), 《풍경 안 풍경》(신세계갤러리, 인천, 부산, 2014), 《올해의 작가상: 겨울여행》(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3), 《파도》(OCI 미술관, 서울, 2012), 《겨울풍경》(아트포럼 뉴게이트, 서울, 2009), 《근린자연》(대안공간 풀, 서울, 2008), 《벽제의 밤》(금산 갤러리, 서울, 2001), 《개,밤》(우덕 갤러리, 서울, 2000) 등이 있으며, 그 외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었으며, 제19회 이인성미술상(2018)을 수상하였다.

김재유

김재유(b.1991)는 단국대학교에서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에서 회화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작가는 작업하는 장소 인근의 장면을 그리며 멈춰 있거나 사라져가고 상태에서 발견한 순간들에 관심을 둔다. 주로 주변 풍경에서 느낀 시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회화적 실험을 이어오고 있다. 《스치는 여름 날에》(공간 시은, 전주, 2018), 《몽중풍경》(복합문화공간 반줄살레, 서울, 2018)의 개인전을 진행하였으며, 《대부 하우스 - 창작의 시간》(선감어촌계 비닐하우스, 안산, 2021), 《생생화화 生生化: 이연연상 Bisociation》(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2020), 《회귀본능》(경기창작센터, 안산, 2019)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김정아

김정아(b.1970)는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하고, 동 대학원에서 관화를 전공하였다. 2011년, 작가는 바다 쓰레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사례를 접한다. 이후 바다에서 쓰레기를 분류하고 기록하는 실천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양 쓰레기 문제를 작업의 주요한 주제로 삼는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바다를 위한 실천을 끌어내는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전시로는 《각자의 바다》(은평문화재단, 서울, 2023),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기념 환경 전시》(백스코, 부산, 2022), 《플라스틱의 두 얼굴》(국립광주과학관, 광주, 2022), 《바다의 미래를 그리다》(KT&G 상상마당, 부산, 2021) 등이 있다.

김창환

김창환(b.1968)은 경원대학교에서 환경조각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작가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철근을 주요 재료로 삼는다. 주로 거대한 크기로 공중에 떠 있는 동물 형상의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철근전》(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2013), 《Swimming in Ssamzigil》(삼지길, 서울, 2011), 《유영》(한전아트센터, 서울, 2011) 등의 개인전을 진행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부산현대미술관, 부산, 2021), 《오마주 투 포스코》(포스코미술관, 서울, 2018),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성산아트홀, 창원, 2018), 《꿈과 일상》(양평군립미술관, 양평, 2016), 《from now》(성남아트센터, 성남, 2016), 《무심》(소마미술관, 서울 2015), 《2015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포항시립미술관, 포항, 2015), 《세종페스티벌: 예술로 안아주기 HUG》(세종문화회관, 서울, 2015)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박미례

박미례(b.1979)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전문사 학위를 취득했다. 작가는 생존을 위해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는 세계, 끊임없이 피어나고 사라지는 생과 사의 사연들, 생명체의 변형과 존재의 흔적에 대해 관심을 두고 이를 회화 매체로 재현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주먹만 한 별》(향유갤러리, 전주, 2022), 《동물혼 動物魂》(인디프레스 갤러리, 서울, 2021), 《무작위의 기술》(디아플랜트 요 갤러리, 서울, 2019), 《야경꾼 Night Wachter》(스페이스 이끼, 서울, 2018), 《기계는 고

물이 되고 사람은 퇴물이 된다》(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6), 《괴작 怪作》(17717, 서울, 2014), 《멀리서는 인간도 파리처럼 보인다》(OCI 미술관, 서울, 2012)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폭풍의곳》(월곶 예술공판장, 시흥, 2022), 《ART IN MY WALLET》(갤러리 오뉴월, 서울, 2022), 《트윈 픽스》(하이트컬렉션, 서울, 2016)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성호숙

성호숙(b.1958)은 홍익대학교에서 조소를 전공한 뒤, 1980년대 미술운동과 노동 현장에 함께 한 미술동인 〈두렁〉의 동인으로 활동했다. 작가는 사회문제에 예술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면서 참여 미술을 통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에 멸종 위기인 저어새에 관한 미술 운동을 필두로, 인류의 이기심과 욕심이 번져 무너지고 있는 환경생태 문제에 주목한다. 최근 개인전 《저어새야, 저어새야》(인천문화양조장, 인천, 2023)을 열었으며, 그 외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민족예술인상(2013)을 받았다.

안경수

안경수(b. 1975)는 부산 출생으로 단국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작가는 풍경을 둘러싼 상황, 풍경이 되지 못한 장면,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그린다. 개발된 도시와 폐허가 된 공간, 이상적 경치와 실재하는 모습의 간극, 필요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의 건축물과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장소 사이의 흘러간 시간을 포착하고 붙잡는 안경수의 풍경은 표면에 가려진 실체를 응시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아이네 클

라인에 나흐트》(모스크바 뮤지엄, 모스크바, 러시아, 2022), 《판타스마고리아》(오퍼센트, 서울, 2021), 《비문증》(상업화랑, 서울, 2018), 《막》(트라이엄프 갤러리, 모스크바, 러시아, 2017) 등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기억-공간》(아르코미술관, 서울, 2023), 《일인가구》(오산시립미술관, 오산, 2023), 《모스크바-서울: 공동의 계획들》(모스크바 미술관, 모스크바, 러시아, 2021) 등이 있다.

양쿠라

양쿠라(b.1981)는 제주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작가는 일상생활에서 버려진 물건이나 주의를 끌지 않는 사물의 이미지를 재해석하여 현시대를 재해석하는 작업을 전개한다. 이러한 작업 방식을 통해 생태계와 환경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작가는 환경 단체, 과학 기술 및 예술가 간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예술이라는 방식으로 다양한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에는 예술과 환경 관련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엄지은

엄지은(b.1994)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조형예술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전문사에서 인터미디어를 전공했다. 작가는 카메라를 든 신체를 매개로 비디오와 퍼포먼스, 그리고 리서치 작업을 통해 감각으로서의 서사를 탐구한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세계의 리듬과 공명하는 순간에 주목하며, 이때 발생하는 개인의 감각이 어떻게 공동의 감각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개인전으로 《배꼽점》(신촌극장, 서울, 2023), 《워킹 메들리》(온수공간, 서울, 2021), 《LIFE VEST

UNDER YOUR SEATS》(상업화랑, 서울, 2017) 등을 선보였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대학로극장 쿼드, SeMA창고, 인천아트플랫폼, 두산갤러리, 아웃사이트, WESS, 아마도예술공간, 민주인권기념관, 아트스페이스 풀, 취미가, 일민미술관, 소소룸, 오뉴월 이주현 등에서 열린 단체전과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콜렉티브 ‘좋은이웃사람’과 ‘예술근육강화훈련’으로 활동하였다.

이육재

이육재(b.1974)는 세종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환경 작가’라고도 불리는 그는 물, 공기, 쓰레기 등 어린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지구의 환경 문제를 그림책으로 풀어낸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개되는 그림책 〈찬란한 여행〉은 귀엽고 반짝이게 탄생했지만, 쓸모를 다하면 쓰레기로 전락하고 마는 곰돌이 페트병의 시선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주요 저서로는 『어디 갔을까, 쓰레기』(파주: 노란돼지, 2017), 『탁한 공기, 이제 그만』(파주: 노란돼지, 2012) 등이 있다.

이재욱

이재욱(b.1980)은 부산 출생으로 홍익대학교에서 디지털미디어디자인을 전공하고 독일 베를린 오스트르크로이츠 사진학교를 수학한 뒤, 독일 브레멘 국립예술대학교 사진미술 석사 과정을 마쳤다. 작가는 동시대 사회,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인간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고, 사진 매체를 통해 이를 재해석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재욱의 작업은 불합리에 대응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행위 자체이기도 하다. 《Event horizon》(갤러리룩스, 서울, 2020), 《레드라인》(상업화랑, 서울, 2019), 《너의 잘못이 아

니야》(KT&G 상상마당 갤러리, 서울, 2018)의 개인전을 진행하였으며, 《정착세계》(서울시립 북서울 미술관, 서울, 2022), 《생생화화 生生化化:이연연상 Bisociation》(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2020), 《방랑》(제주현대미술관, 제주, 2020), 《광장: 미술과 사회》(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9)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이태호

이태호(b.1950)는 경남 고성 출생으로 중앙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기장군 철마면에 작업실을 짓고, 부산에 정주하여 작품 활동을 전개해 왔다. 작가는 ‘먹’을 주요 재료로 삼고, 오랜 시간 평면 작업에 천착하여 일상의 삶과 인간에 대해 밀도 있는 작업을 전개해 왔다. 《긴 여로의 우리는 하나의 과정이자 끝맺음일 뿐》(신세계 갤러리 센텀시티, 부산, 2020), 《그림자, 구름, 그리고...》(대구미술관, 대구, 2016-2017)등을 비롯하여 20여 차례의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모던라이프》(대구미술관, 대구, 2021), 《거대한 일상: 지층의 역전》(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20), 《창 밖의 새는 어떻게 예술을 하는가》(오승우미술관, 무안군, 2018), 《지금, 여기》(포항시립미술관, 포항, 2015)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제16회 이인성미술상(2015)을 수상하였다.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은 1993년에 인천배달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창립하였다. 1996년 7월 인천녹색연합으로 재창립하여 지금까지 1,800여명의 회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민간환경단체다. 정부지원금 없이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인천녹색연합은 인

천 자연생태 곳곳의 가치를 기록하고 알리며 야생동물과 그들의 서식지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한다. 환경권 실현을 위해 환경오염현장을 감시하고, 미세먼지와 쓰레기 없는 지구,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사회를 그려가기 위한 활동을 지속한다. 이들은 농촌 체험, 과 환경캠프,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생활 속의 환경운동을 펼치며, 인천을 위한 실천적 행동을 끊임 없이 모색한다.

임민욱

임민욱(b.1968)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한 뒤, 파리 1대학 판테옹 소르본느 조형예술학과와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조형예술학과 회화과를 졸업했다. 작가는 장르적 구속과 규정을 벗어나려는 수행적 형식을 통해 다양한 버전의 미적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 설치와 일상의 오브제, 방송 장비나 운송수단, 유기물 등의 재료를 다루면서 근대성과 정체성에 대한 질문, 공동체와 기억의 문제, 시간과 공간으로 은폐되었던 장소에 대한 사유와 더불어, 이분법적 사고의 구조를 돌파하고 경계의 위기에 놓인 관계들을 미완의 구조로 살려내는 형식을 모색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정오의 화석》(티나킴 갤러리, 미국, 2022), 《만일(萬一)의 약속》(삼성미술관 플라토, 서울, 2015), 《United Paradox》(프랑크프루트 포르티쿠스 미술관, 독일, 2015), 《Heat of Shadow》(미니애폴리스 워커아트센터, 미국, 2012), 《점프 컷》(아트선재센터, 서울, 2008)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리버풀, 리옹, 시드니, 광주 비엔날레 등과 아이치, 세토우치 트리엔날레, 《2021 타이틀 매치 임민욱 vs. 장영규》(서울시립 북

서울미술관, 서울, 2021), 《2021 광주비엔날레 GB커미션》(옛 국군 광주병원, 광주, 2021), 《내 나니 여자라》(수원시립미술관, 수원, 2020) 등에 참여하였다

전소정

전소정(b.1982)은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미디어아트 석사학위를 받았다. 작가는 영상언어와 글쓰기를 통해 역사와 현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환기시키는 비선형 시공간을 창조하거나, 물리적 경계의 전환이 일상의 감각적 경험을 어떻게 관통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시립미술관, 스위스 베른 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아뜰리에에르메스, 아르코미술관, 파리 팔레트 도쿄 미술관, 파리 빌라 바실리에프, 제11회 광주비엔날레, 삼성미술관리움, 오사카 국립미술관 등 다수의 개인전 및 그룹전에 참여했다. 빌라 바실리프·페르노리카 펠로우쉽, 에르메스재단 미술상, 광주비엔날레 눈 예술상, 송은 미술대상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023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 로 선정되었다.

조광현

조광현(b.1959)은 대구 출생으로 홍익대학교에서 양화를 전공하고, 군산대학교 해양생물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작가는 틈나는 대로 바닷속에 들어가 온갖 물고기와 바다 동물을 관찰한다. 그 경험을 통해 해양 생물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림에 담아내고 있다. 국내에서 해양미술의 길을 개척한 조광현은 한반도 전역의 민물 및 해양 어류를 1,600여점의 세밀화 도판으로 집대성하여 도감을 출판했다. 2006년부터 15년이라는 시간을 공들인 『한반도 바

닷물고기 세밀화 대도감』은 2021년 제4회 롯데출판문화대상, 제62회 한국출판문화상,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조광현 세밀화전: 한국의 물고기》(사비나미술관, 서울, 2021), 《조광현의 FISH》(인사아트센터, 서울, 2021), 《물속 이야기》(갤러리 담, 서울, 2016), 《조광현의 FISH》(인사아트센터, 서울, 2021) 등 10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쓴 책으로 『한반도 바닷물고기 세밀화 대도감』(파주: 보리 출판사, 2021), 『한국의 민물고기』(서울: LG상록재단, 2019),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갯벌 도감』(파주: 보리 출판사, 2016),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바닷물고기 도감』(파주: 보리 출판사, 2016), 『갯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파주: 사계절, 2004) 등 20여권의 저서가 있다.

차기울

차기울(b. 1961)은 경기도 화성 출생으로, 인천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최근에는 자연의 순환원리에 의해 성장하고 변모되어온 사물에 작가로서 최소의 의견을 더하여 개입함으로써 자연이 지니는 원초적 힘과 가능성을 존중하는 작업을 실험하고 있다. 1992년 첫 개인전 《부유하는 영혼》(단성 갤러리, 서울, 1992)을 시작으로 토탈미술관, 갤러리 쿤스트 독, OCI 미술관을 포함한 30여차례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부산비엔날레, 금강국제자연비엔날레, 강원국제트리엔날레 등 크고 작은 국내외 그룹전과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22년 제7회 박수근 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하승현

하승현(b.1994)은 계원예술대학교 사진예술학과를 졸업했다. 작가는 사회적으로 쉽게 잊히는 현실을 좇으며, 흐릿해진 근과거를 재소환하고 문제시하는 작업을 한다. 《무한동력》(공간 황금향, 서울, 2021), 《The Pale Red Dot》(서울시립미술관 SeMA창고, 서울, 2020)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사진의 조각》(아트스페이스 연주라운드, 서울, 2022), 《거의 다 왔어》(아트스페이스 연주라운드, 서울, 2022), 《동강 국제사진제 국제공모전 선정작가전》(동강사진박물관, 영원, 2019)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Participating Artists

Biography

KANG Dong Wan

KANG Dong Wan (b.1974) is a scholar of North Korea with a primary focus on reunification and North Korean affairs. His research centers on the reality of the North Korean people residing in the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Amidst the global border closures prompted by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five West Sea islands became his sole means of pursuing North Korea-related research. Due to his examination of North Korean trash that washed ashore on these islands bordering South Korea, KANG Dong Wan has earned the nickname "Trash Professor." He asserts that the ocean serves as a crucial lens through which to comprehend North Korean society. Among his notable publications are *Revisiting Mongolia through the Lens of Unification* (Busan: Neonadri, 2023), *Picking Up North Korean Trash in the Five Degrees West Sea* (Busan: Neonadri, 2021), *Pyongyang 882.6km: People Beyo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Pyongyang* (Busan: Neonadri, 2020), *Their Own Pyongyang: No People in a People's Paradise* (Busan: Neonadri, 2019), and numerous others.

KANG Honggoo

KANG Honggoo (b.1956) was born in Shinan, Jeollanam-do. After graduating from Mokpo University of Education, he worked a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on the island for

six years. Subsequently, he earned his BFA and MFA from Hongik University, majoring in Western painting. He predominantly employs digital photography as his primary medium. His works include *The Sea of Shinan II*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2023), *The Sea of Shinan, Mud, Sand and Wind* (ONE AND J. Gallery, Seoul, 2022), *Home Flower Village - Memories of Eunpyeong New Town* (Eunpyeong History Hanok Museum, Seoul, 2021), *House of Human Being - Proxemics Busan* (GoEun Museum of Photography, Busan, 2013), *Play with Landscape* (Rodin Gallery, Seoul, 2006), and recently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including *Hahaha* (OCI Museum of Art, Seoul, 2023), *House Arrest - Home sweet home* (Sahngup Gallery Yongsan, Sahngup Gallery Euljiro, Seoul, 2022), and *Wanderers: A Video Chronolog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19). He was awarded the Korea Arts Council Artist of the Year Award in 2006, the Donggang Photo Arts Award in 2008, and the Seoul Lunar Photo Festival Artist of the Year in 2015.

KONG Sung-Hun

KONG Sung-Hun (b.1965-2021) was born in Incheon, South Korea. He pursued Western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electronic engineering at Seoul Institute of Technology before attaining a master's degree in Western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1990s, the artist engaged with various media, including photography and installation. However, from the 2000s and onward, he directed

his focus toward figurative landscape paintings that explore the realm of familiar everyday life through traditional artistic methods. These paintings encapsulate a profound psychological dimension, presenting commonplace landscapes and expansive natural scenes in a peculiar and unfamiliar manner. Noteworthy solo exhibitions of his work include *Landscape as an Event* (Daegu Museum of Art, Daegu, 2019-2020), *The Puddle* (ARARIO MUSEUM TAPDONG CINEMA, Jeju, 2019-2020), *Dusky Landscape* (Arario Gallery, Seoul, 2015), *Throwing Stones* (Tongin Auction Gallery, Seoul, 2014), *In the Scene* (Shinsegae Gallery, Incheon, Busan, 2014), *Korea Artist Prize: Winter Travel*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2013), *Waves* (OCI Museum of Art, Seoul, 2012), *Winter Landscape* (ARTFORUM NEWGATE, Seoul, 2009), *Neighboring Nature* (Alternative Space Pool, Seoul, 2008), *A Night in Byukjae* (Geumsan Gallery, Seoul, 2001), *Dog, Night* (Udeok Gallery, Seoul, 2000). Additionally he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In 2013, he was honored as the Artist of the Year by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nd in 2018, he was awarded the 19th Lee In-sung Art Prize.

KIM Jaeyoo

KIM Jaeyoo (b.1991) graduated from Dankook University with a BFA in Western Painting and received her MFA in Painting from Hongik University. She specializes in painting scenes near her working locations and is intrigued by moments captured in states of suspension or disappearance. Her artistic journey involves experimenting with painting techniques based on her visual encounters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 She has held solo exhibitions such as *On a Summer Day* (Space Sieon, Jeonju, 2018), *Landscape in Dream* (Gallery Banjul, Seoul, 2018), and participated in exhibitions such as *Daebu house - Time to create* (Vinyl House in Seongam Village, Ansan, 2021), *The Breath of Fresh: Bisociation* (Art Center White Block, Paju, 2020), and *Homing Instinct* (Gyeonggi Creative Center, Ansan, 2019).

KIM Jung-Ah

KIM Jung-Ah (b. 1970) studied Western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ursued her major in printmaking at the same graduate school. In 2011, the artist encountered instances of marine ecosystem destruction caused by marine debris. Since then, she has actively engaged in practical initiatives to categorize and document trash found in the sea, making the issue of marine debris a central theme in her work.

Since 2011, she has held the position of artistic director for Ocean, an organization within the East Asian Marine Community. Her involvement in this capacity has led her to pursue artistic endeavors that motivate

action for ocean conservation. Notable recent exhibitions include *Each One's Own Ocean* (Eunpyeong Cultural Foundation, Seoul, 2023), *Environmental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7th International Marine Waste Conference* (BEXCO, Busan, 2022), *The Two Faces of Plastic* (Gwangju National Science Center, Gwangju, 2022), and *Drawing the Future of the Ocean* (KT&G Imagination Garden, Busan, 2021).

KIM Changhwan

KIM Changhwan (b. 1968) graduated from Kyungwon University with a BFA in Environmental Sculpture and later earned his MFA from the same graduate school. The artist's primary materials of choice are stainless steel and rebar. He is renowned for creating large-scale installations featuring animal figures suspended in the air.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such as *Rebar Exhibition* (Young 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ngju, Gyeonggi-do, 2013), *Swimming in Ssamzigil* (Ssamzigil, Seoul, 2011), and *Swimming* (KEPCO Art Center, Seoul, 2011), and participated in *Sustainable Museum: Art and Environment* (Busan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2021), *Homage to POSCO* (POSCO Museum of Art, Seoul, 2018),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Seongsan Art Hall, Changwon, 2018), *Dream and Everyday* (Yangpyeong Museum of Art, Yangpyeong, 2016), *from now* (Seongnam Art Center, Seongnam, 2016), *Mushim*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eoul, 2015), *Pohang Steel Art Festival 2015* (Pohang City Museum of Art, Pohang, 2015), *Sejong Festival: HUG*

with Art (Sejong Center for the Arts, Seoul, 2015), and other group exhibitions.

PARK Mirae

PARK Mirae (b.1979) earned her BFA and MFA from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e artist is intrigued by the world where a fierce struggle for survival unfolds, the stories of life and death that continuously emerge and fade away, the transformation of living beings and the traces of their existence. She brings these elements to life through the medium of painting. Her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The Petite Star* (Hyangyu Gallery, Jeonju, 2022), *Animal Spirits* (Indepress Gallery, Seoul, 2021), *Random Drawings* (THE ART PLANT Jo Gallery, Seoul, 2019), *Night Wachter* (SPACE IKKI, Seoul, 2018), *Machines became junk and humans became useless* (Cheongju Art Creation Studio, Cheongju, 2016), *The rule 怪作 (17717)* (Seoul, 2014), and *Human beings resemble flies at distance* (OCI Museum of Art, Seoul, 2012), and recently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including *Cape of Good Hope* (Wolgok Art Fair, Siheung, 2022), *ART IN MY WALLET* (Gallery O'New Wall, Seoul, 2022), and *Twin Peaks* (HITE Collection, Seoul, 2016).

SUNG Hyo-sook

SUNG Hyo-sook (b. 1958) studied sculpture at Hongik University and was a member of Durung, an art collective that participated in both the art and labor movements during the 1980s. The artist has engaged in participatory

art, consistently contemplating how art can intervene in social issues. Recently, she initiated an art movement centered around the endangered black-faced spoonbill in Incheon, addressi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oncerns that have been compromised by human selfishness and greed. She recently held a solo exhibition titled *Hey Spoonbill, Hey Spoonbill* (Incheon Cultural Brewery, Incheon, 2023) and has also taken part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In 2013, she was honored with the National Artist Award by the Korea Federation of National Artists.

AN Gyungsu

AN Gyungsu (b. 1975) was born in Busan, Korea, and graduated from Dankook University with a BFA in Oriental Painting and received an MFA in Oriental Painting from Hongik University. The artist portrays circumstances surrounding landscapes, scenes that remain on the edge of becoming landscapes, and moments in between. Capturing and holding onto the passage of time between developed cities and abandoned spaces, the gap between idealized landscapes and their actual appearance, urban architecture that changes as needed, and places that disappear without a trace, An's landscapes confront the reality beneath the surface. Some of his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Eine kleine Nacht* (Moscow Museum, Moscow, Russia, 2022), *Phantasmagoria* (Offerscen, Seoul, 2021), *Myodesopsia* (Sahngup Gallery, Seoul, 2018), and *Membrane* (Triumph Gallery, Moscow, Russia, 2017), and noteworthy group exhibitions include *Memory-Space*

(Arko Museum, Seoul, 2023), *One-Person Household* (Osan Museum of Art, Osan, 2023), and *Moscow - Seoul : Common Idea* (Moscow Museum of Art, Moscow, Russia, 2021), among others.

Yangkura

Yangkura (b.1981) was born in Jeju, Korea, and studied sculpture at Chung-Ang University. He later earned his MFA at the same graduate school. He develops his work by reinterpreting images of abandoned objects or objects that often go unnoticed in everyday life, thus providing a new perspective on the present times. This approach has naturally sparked his interest in ecosystems and the environment. He values collaboration between environmental organizations, science, technology, and artists, striving to address various issues through art. Recently, he has been involved in planning exhibitions and educational programs focused on the intersection of art and the environment.

UHM Jieun

UHM Jieun (b. 1994) received a BFA and an MFA in Intermedia fro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he works primarily with video, performance, and research, which she employs to explore narrative as a sensory experience, mediated through the body holding a camera. Her focus lies in recognizing the moments when individual subjective experiences resonate with the rhythms of the world. Contemplating how these personal perceptions, formed at

specific instances, can evolve into shared and universal perceptions. She has held a few solo projects including *Navel Point* (Sinchon Theatre, 2023), *Walking Medley* (Onsu-gonggan, 2021), and *LIFE VEST UNDER YOUR SEATS* (Sahng-Up Gallery, 2017). She participated in performance and group exhibitions held in MMCA Cheongju, Theater QUAD, SeMa Storage, Incheon Art Platform, Doosan Gallery, out_sight, WESS, Amado Art Sp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Memorial Hall, Art Space Pool, Tastehouse, Ilmin Museum of Art, Soshoroom, and O'New Wall E' Juheon. She was engaged in collective 'The Good Neighbor' and 'Practice of YSGY (Yaesulgeunyook)'.

LEE Wookjae

LEE Wookjae (b. 1974) majored in Western Studies at Sejong University. Also known as an "environmental artist," he writes picture books that address global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water, air, and trash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 The picture book *Splendid Journey*, introduced in this exhibition, tells the story from the point of view of a plastic bottle that is born cute and shiny but ends up as trash when it outlives its usefulness. His previous books include *Where Did It Go, Trash* (Paju: Yellow Pig, 2017), *Uncle Ding Dong of Room 901* (Paju: Yellow Pig, 2014), *Clear Sky, No More* (Paju: Yellow Pig, 2012), and *Stale Air, No More* (Paju: Yellow Pig, 2012).

LEE Jaeuk

LEE Jaeuk (b.1980) was born in Busan, Korea. He majored in Digital Media Design at Hongik University, studied at the Ostkreuz School of Photography in Berlin, Germany, and completed his MFA in Photography at the University of the Arts Bremen, Germany. He is interested in contemporary society, culture, and human identity, and has been reinterpreting them through the medium of photography. His work is an act of responding to absurdity and seeking a way forward.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of *Event horizon* (Galerie Lux, Seoul, 2020), *Red Line* (Sahngup Gallery, Seoul, 2019), *It's not your fault* (KT&G Sangsangmadang Gallery, Seoul, 2018), *The Printed World* (Buk Seoul Museum of Art, Seoul, 2022), *The Breath of Fresh: Bisociation* (Art Center Whiteblock, Paju, 2020), *Wandering in Art*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Jeju, 2020), and *The Squar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2019).

LEE Taeho

LEE Taeho (b.1950) was born in Goseong, Gyeongsangnam-do. He graduated from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ainting, and earned a master's degree in art education from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1989, he built a studio in Cheolma-myeon, Gijang-gun, and settled in Busan, where he has been developing his work. The artist uses ink as his main material and has been working with flat surfaces for a long time, creating intricate works that

explore everyday life and human experience. He has held over 20 solo exhibitions, including *We are only a process and the end of a long journey* (Shinsegae Gallery Centum City, Busan, 2020), *Shadow, Cloud, and...* (Daegu Museum of Art, Daegu, 2016-2017), *Modern Life* (Daegu Museum of Art, Daegu, 2021), *Greatness of Everyday: Reversing the Narratives* (Busan Museum of Art, Busan, 2020), *How Does the Bird Outside the Window Make Art* (Oh Seungwoo Museum, Muanan, 2018), and *Now, Here* (Pohang Museum of Art, Gwacheon, 2015), among other group exhibitions. He was awarded the 16th Lee In-sung Art Prize (2015).

Green Korea Incheon

Green Korea Incheon was founded in 1993 under the name Incheon Delivery Environment. It was re-established as Green Korea Incheon in July 1996 and is a private environmental organization with more than 1,800 members. The organization, which receives no government funding and is supported by donations from citizens, documents and raises awareness about the value of Incheon's natural ecosystems. They also undertake activities to protect wildlife and their habitats. With the goal of realizing the right to a clean environment, they monitor sit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ontinue to work towards a society that is free from fine dust and trash, and where nature and people coexist harmoniously. Through rural experiences, environmental camps, and various ecological education programs for future generations, they aim to enhance the

ecological awareness of citizens and guide them towards a life of living with nature. They actively engage in environmental activism in their daily lives and consistently seek practical measures for the betterment of Incheon.

LIM Minouk

LIM Minouk (b.1968) studied Western painting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Sculpture at Pantheon Sorbonne, University of Paris 1 as well as the Department of Painting at th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Paris, France. She continually evolves her aesthetic practices through various performative forms that seek to transcend genre constraints and regulations. Through performance-based video installations and materials ranging from everyday objects and broadcasting equipment to transportation and organic matter, she delves into questions of modernity and identity, issues of community and memory, and places that have been concealed by time and space. She also explores forms that challenge dichotomous thinking and reinvigorate unfinished structures of relationships amid crisis of boundaries. Lim's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The Promise of If* at PLATEAU Samsung Museum of Art, Seoul (2015), *United Paradox* at Portikus, Frankfurt (2015), *Heat of Shadow* at the Walker Art Center, Minneapolis (2012) and *Jump Cut* in Artsonje Center, Seoul (2008). Lim also participated in a number of group exhibitions and biennials including Liverpool Biennial, Lyon Biennial, Sydney Biennial,

Gwangju Biennial, as well as the Aichi and Setouchi Triennale, *2021 Title Match Lim Min-wook vs. Jang Young-gyu* (Buk Seoul Museum of Art, Seoul, 2021), *2021 Gwangju Biennale GB Commission* (Gwangju Hospital, Gwangju, 2021), and *Born' A Woman* (Suwon iPark Museum of Art, Suwon, 2020).

JUN Sojung

JUN Sojung (b.1982) was born in Busan, South Korea. She has received her BFA in Sculptur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MFA in Media Art from the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 Art at Yonsei University. Using the language of video and writing, the artist is interested in creating a nonlinear space-time to awake a new awareness of history and the present or in how the changes made in physical boundaries penetrate daily sensorial experiences. JUN has held solo and group exhibitions at a number of institutions includi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Museum of Art, Kunstmuseum Bern, Nam June Paik Art Center, Atelier Hermès, ARKO Art Center, Palais de Tokyo, Paris Villa Vassiliev, 11th Gwangju Biennale, Leeum Samsung Museum, and The National Museum of Art, Osaka. JUN's works are in the permanent collection of leading art galleries and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such as Han Nefkens Foundation, Uli Sigg Collection, MMC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Korea), Seoul Museum of Art, and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he has been awarded the Villa Vassiliev-Pernod Ricard Fellowship, the Hermes Foundation Missulsang, the

Gwangju Biennale's Noon Art Prize, and the SongEun Art Award's Grand Prize. In 2023, she was honored as the Artist of the Year by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HO Kwang Hyun

CHO Kwang Hyun (b.1959) was born in Daegu, Korea, and studied Wester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He also earned a master's degree in marine biology at Gunsan National University. Whenever he has the opportunity, the artist dives into the sea to observe various fish and marine animals. Through these experiences, he captures the appearance and lifestyle of marine life in his paintings. As a pioneer in the field of marine art in Korea, CHO published a book of containing 1,600 detailed illustrations of freshwater and saltwater fish species foun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The book, titled *A Detailed Atlas of Korean Peninsula Saltwater Fishes*, was a 15-year undertaking, starting in 2026. It received recognition, winning the 4th Lotte Publication Culture Award, the 62nd Korea Publication Culture Award, and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ward in 2021. He has presented his work in 10 solo exhibitions, including *CHO Kwang Hyun Detailed Painting Exhibition: Korean Fish* (Sabina Art Museum, Seoul, 2021), *FISH by CHO Kwang Hyun* (Insa Art Center, Seoul, 2021), and *Stories in the Water* (Gallery Dam, Seoul, 2016). Additionally, he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He has authored over 20 books, some of which include *The Detailed Atlas of*

Korean Peninsula Saltwater Fishes (Paju: Bori Publishing House, 2021), *Freshwater Fishes of Korea* (Seoul: LG Evergreen Foundation, 2019), *Bori Children's Detailed Atlas of Tidal Flat* (Paju: Bori Publishing House, 2016), *Bori Children's Detailed Atlas of Saltwater Fish* (Paju: Bori Publishing House, 2016), and *Tidal Flats: What's Happening?* (Paju: Four Seasons, 2004).

CHA Gi-Youl

CHA Gi-Youl (b. 1961) was born in Hwaseong, Gyeonggi-do, and studied painting a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Recently, he has been experimenting with works that honor the primordial power and possibilities of nature by intervening in objects that have grown and been transformed by the cyclical principles of nature, with minimal input from the artist. Since his first solo exhibition, *Floating Soul* (Danseong Gallery, Seoul, 1992), he has held over 30 solo exhibitions, including at the Total Art Museum, Gallery Kunst Dok, and OCI Art Museum. Additionally, he has participated in various large and small group exhibitions and projects, such as the Busan Biennale, Geumgang International Nature Biennale, and Gangwon International Triennale. In recognition of his artistic achievements, he was selected as the recipient of the 7th Park Soo-geun Art Prize in 2022. Currently he serves as a professor a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HA Seunghyeon

HA Seunghyeon (b.1994) graduated from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majoring in Photography. His work delves into the realities that are often overlooked by society, prompting a reconsideration and analysis of the blurred past.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including *Infinite Power* (Space Golden Hyang, Seoul, 2021) and *The Pale Red Dot* (SeMA Warehouse, Seoul Museum of Art, Seoul, 2020). Furthermore, he has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such as *Photo Sculpture* (Art Space Eonju Round, Seoul, 2022) and *Almost There* (Art Space Eonju Round, Seoul, 2022), as well as *Selected Artists of Donggang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 International Competition* (Donggang Photo Museum, Yeongju, 2019).

이태호
LEE Taeho

《황해어보 黃海魚譜》 전시예술감독
Exhibition Art Director of
An Observation of the Yellow Sea

이태호(b.1951)는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역임했고 낙산공공미술연구소 대표이다. 동시대 조형예술 전시를 기획하고, 미술이론과 비평을 연구하며 전시 기획, 글쓰기와 미술작업을 병행한다.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몽클레어 주립 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소학과를 수학했다. 부산비엔날레 조각프로젝트(2006), 공공미술 낙산프로젝트(2007), 《입양인, 이방인: 경계인의 시선》(2007),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지로 접은 비행기》(2022)의 전시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비엔날레, 대전시립미술관, 한가람미술관, 토탈미술관, 학교재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2023년 인천아트플랫폼 《황해어보 黃海魚譜》 전시예술감독으로 초청되어, ‘바다’를 주제로 해양 생태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다층적으로 조망하는 전시를 총괄 기획했다.

LEE Taeho (b. 1951) is a former professor at Kyung Hee University's College of Fine Arts and the director of the Naksan Institute of Public Art. He curates contemporary art exhibitions, conducts research in art theory and criticism, organizes exhibitions, writes, and creates artworks. He graduated with a major in sculpture from Hongik University and earned his master's degree at the same graduate school. He also studied sculpture at Montclair State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He has served as an art director for various projects, including the Busan Biennale Sculpture Project (2006), Public Art Naksan Project (2007), *Adoptee, Stranger: A Borderline Gaze* (2007), *Korean Diaspora: An Airplane Folded in Hanji* (2022). He has also participated in numerous exhibitions, including those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ngju Biennale, Daejeon Museum of Art, Hangaram Art Museum, Total Art Museum, and Hakgojae Gallery. In 2023, he was invited to be the art director of the *An Observation of the Yellow Sea* exhibition at the Incheon Art Platform. In this role, he oversaw a multilayered exhibition that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ine ecological environment and humans, focusing on the theme of the sea.



참여 작가

강동완, 강홍구, 공성훈, 김재유, 김정아, 김창환, 박미래, 성효숙, 안경수, 양쿠라, 엄지은, 이욱재, 이재욱, 이태호, 인천녹색연합, 임민욱, 전소정, 조광현, 차기울, 하승현

기획·총괄 《황해어보 黃海魚譜》 전시예술감독 이태호	그래픽디자인 스파인 프레스
진행 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김경민, 《황해어보 黃海魚譜》 협력 큐레이터 김현주	공간디자인 금손건축
진행 보조 인천아트플랫폼 김수민	공간조성 성덕건설
전시 관리 요원 강혜영, 김동근, 김희중, 방영석, 이다예, 장혜선	음향, 영상 케이마운트
	운송 및 설치 마이컴퍼니글로벌
	홍보물 제작 설치 아트엠
	영문 번역 말뚝지
	수어해설영상 space SAM,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점자자료 송암점자도서관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문화재단-인천아트플랫폼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구
	인천문화재단 문화공간본부장 손동혁
	인천아트플랫폼 운영팀장 이영리

관람시간 화 — 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무료
---	-----------

Artists

KANG Dong Wan, KANG Honggoo, KONG Sung-Hun, KIM Jaeyoo, KIM Jung-Ah, KIM Changhwan, PARK Mirae, SUNG Hyo-Sook, AN Gyungsu, Yangkura, UHM Jieun, LEE Wookjae, LEE Jaekuk, LEE Taeho, Green Korea Incheon, LIM Minouk, JUN Sojung, CHO Kwang Hyun, CHA Gi-Youl, HA Seunghyeon

Curated by LEE Taeho, Exhibition Art Director of <i>An Observation of the Yellow Sea</i>	Graphic Design SPINE PRESS
Curatorial team of IAP KIM Kyungmin, Inchoen Art Platform Curator KIM Hyunju, Associate Curator of <i>An Observation of the Yellow Sea</i>	Architectural Collaborator Sonkim Architects
Exhibition Assistant KIM Soomin, Inchoen Art Platform Assistant Manager	Space Construction Sungduk Co., Ltd.
Management Staffs KANG Hae young, KIM Dong-geum, KIM Hee joong, BANG Young-seok, LEE Daye, JANG Hyesun	A/V K Mount
	Logistics & Installation MY COMPANY Global co., Ltd.
	Publcity Materials Art M
	English Translation Malpigg
	Sign Language Video Material Production space SAM, Incheon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Center
	Braille Text Songam library for the blind

Organized by Incheon Metropolitan City	Opening Hours Tuesday — Sunday, 11am — 6pm Closed on Mondays
Supervised by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IFAC) Incheon Art Platform (IAP)	Admission Free
CEO of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LEE Jonggu	
Managing Director, Division of Cultural Space SON Donghyek	
Team Manager of IAP LEE Young-Ri	

발행처
인천아트플랫폼

총괄
《황해어보 黃海魚譜》
전시예술감독 이태호

발행인
인천문화재단
이종구 대표이사

편집인
김경민, 김현주

편집인
그래픽디자인
스파인 프레스

발행일
2023년 11월

ISBN
978-89-92678-85-8

비매품

전자책 ISBN
978-89-92678-86-5

© 인천아트플랫폼, 2023

본 책은 2023년 인천아트플랫폼에서 개최한 기획전시
《황해어보 黃海魚譜》(2023.9.7. — 2023. 11.12.)의 전시 도록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이미지의 저작권은
인천아트플랫폼과 해당 저자 및 작가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자와
인천아트플랫폼의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복제, 변형, 송신을
금합니다.

이 책은 무염소 표백 펄프법 ECF(Elementary Chlorine Free)와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
22314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해안동 1가)

Tel. +82. 32. 760. 1000
Fax. +82. 32. 760. 1010

Published by
Incheon Art Platform

Publisher
LEE Jonggu, CEO,
Incheon Foundation Art &
Cultrue

Director
SON Donghyek,
Managing Director,
Division of Cultural Space

Supervised by
LEE Taeho,
Exhibition Art Director of
*An Observation of
the Yellow Sea*

Edited by
KIM Kyungmin,
KIM Hyunju

Graphic Design
SPINE PRESS

Published on
November, 2023

Print
Hangeul

ISBN
978-89-92678-85-8
Not for sale

E-book ISBN
978-89-92678-86-5

© 2023 Incheon Art Platform

This book is published on occasion of 2023 Incheon Art
Platform Exhibition *An Observation of the Yellow Sea*
(September 7 — November 12, 2023).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or any other info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in writing
from prospective copyright holders and Incheon Art
Platform.

This book is made from ECF(Elementary Chlorine Free),
FSC-certificated papers and recycled materials.

Incheon Art Platform
3, Jemullyang-ro 218beon-gil, Jung-gu, Incheon, 22314,
South Korea

www.inartplatform.kr
facebook.com/inartplatform
instagram.com/incheonartplatform
youtube.com/incheonartplatform

ISBN 978-89-92678-85-8
